

국립국어원 2010-03-19

새터민 언어 적응 지원을 위한
새터민 교사 연수
자 료 집



국립국어원

차 례

국립국어원 소개	1
국어문화학교 소개	3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적 특징과 화법에 대한 이해 한정미	7
새터민의 남한어 적응과 언어 교육 양수경	23
표준어 발음 교육 박성현	45
표준어 억양 교육 김은애	65

국립국어원 소개

설립 목적

▶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 활동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함.

- 국어·언어 정책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언어와 문자의 정보 자원 구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공공 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국어 관련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 국어·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하는 일

(1)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검색 서비스 및 국어 관련 정보 제공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에서 ‘표준국어대사전’, ‘국어연감’ 등의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국어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어문 규정, 정기 간행물, 연구 보고서, 소장 자료, 국어 논저, 기사, 공개 자료실 등).

(2)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전화(1599-9979, 02-771-9909)

- 상담 시간: 월~금, 09:00~18:00, 전화 상담원이 국어 어문 규범을 비롯한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
- 묻고 답하기: 국립국어원 누리집 게시판에서 국어 관련 상담.

(3) 국어 정보지 발간·배포

- 계간지 ‘새국어생활’: 국어 생활 전반의 관심거리를 다루어, 국민의 국어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고자 발간·배포함.

-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국어 관련 소식 제공과 국어원 활동 홍보를 위해 달마다 발간하여 전자 우편으로 발송함. 정기 수신 요청: news@korean.go.kr로.

(4)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http://www.malteo.net>)

- 국립국어원에서는 1991년 개원 이래 일본어 투 용어, 어려운 한자어, 서양식 외래어 등을 순화해 왔음. 2003년 ‘우리말 순화 자료집(합본)’ 발간 이후, 2004년 7월부터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

(5) 디지털 한글 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한글자료 통합 관리 체계.
- 한글문화 유산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덧붙인 디지털 전시관(역사관, 조형 예술관, 학술 정보관, 교육 문예관, 미래관, 한글 생활관) 운영.

(6) 국어문화학교 운영

-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자 1992년부터 국어문화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어문화학교 소개 ●

개 관

국어기본법 및 그 시행령의 시행(2005. 7. 28.)으로 인하여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업체 등 공공 기관 종사자의 국어 재교육의 필요성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국어문화학교를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수강생의 다양한 학습 목적과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국의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의 신청으로 국어 전문 강사가 요청 기관에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국어 관련 강좌와 교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운 영 목 적

국어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 사용 능력을 키워 줌으로써,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운 영 현 황

국립국어원에서는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여 국민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1992년부터 국어문화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현재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국립국어원 원내 국어문화학교 수강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1년에는 약 1,300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약 2,700명에 이르러, 9년간 약 1만 7천 명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는 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의 관심과 학습 욕구가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수강자의 연도별 증가 추이

연 도	원내 국어문화학교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개설 반	개설 횟수	수강 인원	강의 횟수	수강 인원
2001년	22	19	1,292	123	15,412
2002년	25	19	1,452	185	16,970
2003년	29	16	1,486	157	17,890
2004년	30	17	1,458	176	16,332
2005년	30	17	1,765	195	15,655
2006년	32	18	1,921	190	12,926
2007년	38	22	2,354	253	19,305
2008년	38	22	2,443	148	10,275
2009년	44	27	2,733	297	19,062
합 계	288개반	177회	16,904명	1,724회	143,827명

교육 과정 안내

(1) 국어전문교육과정(원내 국어문화학교)

(가) 공무원 및 일반인반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참조
- **신청 자격:** 직업 · 연령 제한 없음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52 / 전송 (02)2669-9787
 - * 공무원의 경우, 교육 시간 35시간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연습, 띄어쓰기, 띄어쓰기 연습,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공문서 바로 쓰기, 글 쓰기 지도, 협력적 의사소통, 우리말 다듬기,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 시청각 학습 등

(나) 교사반

- **교육 기간:** 동계, 하계 방학 중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 **신청 자격:** 초 · 중 · 고 교사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52 / 전송 (02)2669-9787

- *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이 교사 직무 연수 기관으로 지정받음
- * 교육 시간 30시간, 교육 점수 2점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이론과 실제, 구별해야 할 말, 띄어쓰기, 문장 부호 사용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글을 바르게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학교 생활문 쓰기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청소년과의 대화법 등

(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 신청 기간: 전월 15일까지 접수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 신청 요건: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 수강 인원 30명 이상

●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어디나 가능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29 / 전송 (02)2669-9787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 글을 바르게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표준 발음법, 효과적인 말하기 등
 - 언어와 문화: 언어 예절, 우리말과 국어문화 등
- * 강의료는 국립국어원에서 부담하고 교재도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함.

(3)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을 통하여 현재 ‘한글 맞춤법’, ‘공문서 바로 쓰기’, ‘외국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식 개선과 국어 순화’, ‘새터민 발음 교육’ 등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적 특징과 화법에 대한 이해

한 정 미(하나원 우리말상담실)

1. 북한말에 대한 오해

말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한다. 화자에게 익숙한 언어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구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연령, 학력, 출신 지역 등을 고려하여 언어를 구사하려고 하는 것도 청자와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동향 사람들과 지역 언어를 구사하다가도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이내 표준어로 바꾸어서 대화를 시도한다. 물론 간간히 사투리 억양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은 사투리가 아닌 표준어를 구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송·서적·인터넷 등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일상에서 표준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만날 기회도 많기 때문에 굳이 표준어 학습에 대한 강제성을 띠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표준어 학습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표준어를 몰라서 사투리를 구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북한 출신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남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미 널리 알려진 북한 문화어, 예를 들어 얼음보숭이·손기척·오목샘·가두녀성 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북한은 당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체제이기에 인민의 생활 중 많은 부분이 획일화되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언어도 마찬가지로 당에서 문화어를 제정·공포를 하면 전 인민은 문화어를 획일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언어생활을 지켜보기 전, 필자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함경도, 평안도 등의 방언을 사용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어에 대한 학습은 정확히,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북한 문화어로 접근을 하면 북한 이탈 주민과 대화하는 것이 다소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실재는 달랐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언어는 문화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당에서 제정한 문화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¹⁾ 당의 언어 정책과 인민의 언어생활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²⁾

분명, 말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한다. 따라서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결국은 북한 출신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를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물론,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적 특징이 북한말의 특징을 전적으로 대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북한말의 특징과 북한 이탈 주민들의 언어적 특징에 차이가 크다는 점은 분명 간과할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언어생활을 바탕으로 한 북한말의 실재를 다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북한말의 특징을 말할 때 흔히들 다음과 같이 말한다.³⁾

1. 북한 사람들은 외래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 북한에서는 한자어 대부분을 순우리말로 바꾸어서 사용한다.
3. 당에서 제정한 문화어를 거의 대부분의 인민들이 사용할 것이다.

1) 함경도 출신보다는 평양 출신이 문화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평양 출신도 문화어로 소개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남한 사람도 표준어를 모르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남한 사람들이 ‘냄비/남비’, ‘아지랑이/아지랭이’ 등 표준어의 표기가 알쏭달쏭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라면, 북한의 경우는 ‘오목샘은 보조개의 문화어’, ‘가두녀성은 가정주부의 문화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2) 어문 규정과 생활 언어 사이에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유로운 언어생활을 하고 있는 남한보다 강제성, 획일화로 대변되는 북한이 어문 규정과 생활 언어 간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보일 정도로 그 차이가 크다.

3)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은 하나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거의 대부분이 근무 초기에 갖게 되는 의문이다. 북한에서도 부분적으로 외래어나 한자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을 했으나 생각보다 많이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근무 초기에는 다소 당황하기도 한다.

북한이 남한보다 외래어와 한자어 사용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인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에는 외래어도 많고, 한자어도 많다. 그리고 문화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면면이 살펴보면 남한 사람들보다 북한 문화어를 더 모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이는 남한에서 북한말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각 항목을 북한 이탈 주민들의 언어생활을 바탕으로 재조정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북한 사람들도 외래어를 많이 사용한다.⁴⁾

그루빠(러. 남: 그룹)	깔따(러. 남: 진료 카드, 진찰권)
땅크(러. 남: 탱크)	트락토르(러. 남: 트랙터)
불도젤(러. 남: 불도저)	쁠류스(러. 남: 플러스, 덧셈 부호)
왈렌끼(러. 남: 부츠)	칼파스(러. 남: 소시지)
렌트겐(독. 남: рентген, 엑스선)	에네르기(독. 남: 에너지)
까까오(스페인. 남: 카카오)	메히꼬(스페인. 남: 멕시코)
몽파쥬(프랑스. 남: 몽타주)	헝그리아/마자르(헝. 남: 헝가리)
요콩지(중. 남: 리모컨, 원격 조정기)	고뿌(일. 남: 컵)
다마(일. 남: 전구)	다마네기(일. 남: 양파)
라지오(일. 남: 라디오)	메가네(일. 남: 안경)
※ 이상 괄호 안은 편집자 주	

2. 북한에서는 한자어도 많이 사용한다.⁵⁾

전지(남, 랜턴)	립체교(남, 인터체인지)	비법(남, 불법)
접영(문화어: 나비헤엄)	가축(문화어: 짐짐승)	폐허(문화어: 재더미)

4) 북한에는 러시아·중국·일본식 외래어가 많다. 남한에서는 일본식 외래어가 많이 사라졌는데 반해 북한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어휘가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5) 남한에 유통되는 북한어에는 남한에서 미루어 짐작하여 혹은 유머를 목적으로 만든 것도 적잖이 있는 것 같다. 주체 언어, 즉 순우리말로 바꾸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북한의 언어규정을 확대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전구, 형광등 등을 순우리말로 풀어서 쓴 단어의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문화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⁶⁾

노크>손기척	수영장>물놀이장	키파(납, 골키퍼)>문지기
가락지빵(× 남: 도넛)	얼음보숭이(× 남: 아이스크림)	독연극(× 남: 모노드라마)
끌신(×, 남: 슬리퍼)	민간화(× 남: 민화)	오목샘(× 남: 보조개)

이처럼 북한에서도 외래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당의 언어 정책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언어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있다. 물론 남한보다는 외래어나 한자어 사용이 적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외래어나 한자어로 말하는 북한 이탈 주민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것, 남한에 널리 알려진 북한 문화어를 북한 이탈 주민이 모른다고 하여 이상하게 생각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북한 인민의 언어생활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남북한 언어의 차이

2.1. 어휘 및 표현의 측면

남북한 언어의 차이는 어휘 및 표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차이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에 그 기준을 설정하여 정확하게 구분지어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의미가 전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언어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한 쪽에는 있으나 다른 한 쪽에는 없는 단어도 있다. 단어는 같으나 사용 범주나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고, 의미는 통하나 사용하는 단어가 다른 경우도 있다. 그런가 하면 말은 같으나 글(맞춤법)이 다른 경우, 앞뒤 말을 서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경우, 피동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는 등이 남한과 다르다.

6) ‘노크>손기척’은 손기척이라는 문화어보다는 ‘노크’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뜻이고 ‘가락지빵(× 남: 도넛)’은 남한의 ‘도넛’에 해당하는 문화어는 ‘가락지빵’이지만 인민들은 ‘가락지빵’이라는 말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가) 완전히 다른 언어

목발→짜지발 ⁷⁾	입덧→입쓰리	사랑니→양니
잇몸염증→치담	쳐갓집→가시집	파출소→분주소
강낭콩→얹은당콩	돌고래→곶등어	복어→보가지
양계장→닭공장	당직→직일	보따리장사→되거리장사
흑설탕→홍탕	뒷받침→안받침	장점→우점
단짜친구→딱친구	방침→테제	칼국수→칼제비국

나) 체제와 이념이 달라 남북한에 서로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담은 언어

○ 남한에만 있는 단어 예

립싱크	귀경, 귀성	퀵서비스
주상복합아파트	정수기	비데
개그맨	저작권법	정찰제
광고주	야당	리콜

○ 북한에만 있는 단어 예

생활총화	붉은넥타이	정성사업
직맹	당세포	사상투쟁
혁명가극	천리마운동	장군님모시기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 범주나 의미가 다른 경우

○ 사용 범주가 다른 예(의미는 같음)

여사·선물·자제·댁(김일성 일가 혹은 당 일꾼 대상으로만 사용)
 덤비다·~합시다·~하시오(북, 웃어른에게 사용 가능)
 살찌다(북, 사람에게 사용 불가) 실하다(남, 사람에게 사용 자제)
 방조(남: 도움) 수리(남: 수선)
 동복(남: 겨울 잠바, 파카, 패딩)
 큰어머니(남: 어머니의 언니, 이모)⁸⁾

7) 앞에 제시한 것은 남한 표준어, 뒤에 제시한 것은 북한 문화어. 이하 동일.

○ 의미가 다른 예

맹랑하다(남: 황당하다)	이악하다(남: 강인하다)
욕하다(남: 야단맞다)	장악하다(남: 파악하다)
소환하다(남: 발령받다)	어혈(남: 후유증)
전지(남: 랜턴)	매대(남: 매점)
낙지(남: 오징어)	오징어(남: 갑오징어)
고약(남: 연고)	조선고약(남, 고약)
미제(美帝)(남: 미국, 미국 사람)	
아가씨(북: 밤일(?) 하는 여자, 유흥접객업 종사 여성)	

라) 의미는 통하나 어휘 및 표현이 다른 경우

○ 어휘 예

차단기→차단봉	멈춤, 정지→셋	불법→비법
가위바위보→가위주먹	옷→옷티	우체국→체신소
한국어(한국말)→조선말	한글→조선글	북한→조선
고철→파철	건널목→기차건널길	횡단보도→도로건널길
게시판→알림판	살빼기, 다이어트→몸까기	

○ 표현 예

십 킬로그램(kg)→열 킬로그램(kg)	삼거리→세거리
십칠 세→열일곱 살 ⁹⁾	힘들다→바쁘다
쥐 났다, 쥐 내린다→쥐 올라온다, 쥐 온다	기분 나쁘다→기분 없다
이런 말을 자주 쓴다→이런 말을 세게 쓴다	발이 넓다→면이 넓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새해를 축하합니다	가르쳐주다→배워주다
이거 건드리지 말아라→이거 다치지 말아라	

8) 북한에서는 아버지의 형 부부와 어머니의 언니 부부 모두를 ‘큰아버지, 큰어머니’로 칭하는 경우가 많다.

9) 북한에서는 십칠세는 한자식 표현이기에 열일곱살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마) 앞뒤 말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경우

상호 간→호상 간	족발→발족	성숙→숙성
작동→동작	채소→소채	상대→대상
의식주→식의주	남북→북남	간혹→혹간
사병→병사	우왕좌왕→좌왕우왕, 우왕좌왕	

바) 맞춤법이 다른 경우

휴게실→휴게실	비율→비률	이빨→이발
아내→안해	젓가락→저가락	손뼉→손벽
색깔→색갈	날짜→날자	끈기→근기
(종이)조각→쪼각	되었다→되였다	죽을 뻔→죽을 번
무엇을 할까?→무엇을 할가?	이해→리해	원수→원췌
외치다→웨치다	왜곡→외곡	올바른→옳바른

사) 옛말(고유어)에 대한 관리가 다름

- 남한은 변화 인정, 북한은 옛말 지키기

게사니(남: 거위)	부루(남: 상추)	남새(남: 채소)
우정(남: 일부러)	헐하다(남: 쉽다)	언치다(남: 채하다)
인차(남: 이내, 곧)		
마사지다(남: 부숩지거나 깨져서 못 쓰게 되다 ¹⁰⁾)		

아) 피동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¹¹⁾

합격되다	진행되게 되다	요구되다
배워주다(북한에서 ‘가르쳐 주다’ 대신에 사용하는 말)		

10) 풀이 출처: “남북통일말사전”(2006), 관정이중환교육재단 엮음, 대표집필: 심재기 서울 대명예교수, 두산동아 펴냄.

11) 김일성 부자의 선택이나 행위는 자동사로, 그 외의 경우는 피동사로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 당의 선택에 의존한 수동적인 생활태도가 언어생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예) 장군님의 가르침을 - 장군님이 배워주신 대로 당이 요구하는 - 인민이 요구되는 바를

바)와 아)의 경우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다. 라), 마), 사)의 경우도 조금만 신경 쓰면 내용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문제다. 익숙한 어휘나 표현이 아니어서 이상하게 생각은 되지만 앞뒤 문맥이나 정황을 참고로 한다면 그럭저럭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¹²⁾ 그러나 가), 나), 다)는 대화 중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가)와 나)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고, 다)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심각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이탈 주민은 강인하다는 의미로 ‘우리 어머니는 이악하다’라고 말했는데 남한 사람들은 어머니의 성품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이탈 주민은 어머니 언니의 남편을 소개하면서 ‘큰 아버지입니다.’라고 말했는데 남한 사람은 소개한 사람과 성이 다른 큰아버지를 대하여 조심스러워서 가정사에 대한 질문을 피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상사에게 ‘댁’이나 ‘자제’ 등의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거나 웃어른에게도 ‘식사합시다’라고 청하는 바람에 북한 이탈 주민을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남북한 언어의 차이는 의사소통 방해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품을 오해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2. 발음 및 어조의 측면

북한 이탈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남한 사람들과는 다른 북한식 발음과 어조 때문에 불편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 그 자체로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남한 말과 비교했을 때 남한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가)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에 비해 높은 음으로 말한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는 음성의 음높이는 ‘미’에서 ‘솔’ 사이라고 한다.

12)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남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지 않는 어휘나 표현의 경우도 남한 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하나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학습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상대에게 친절한 태도를 취할 때나 상대를 긴장시켜야 할 경우에는 ‘술’ 음에 가깝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 음으로 이야기 할 것을 권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들은 보통 ‘시’ 이상의 음높이로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말한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는 말하기 속도는 1분에 200음절로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북한 당에서도 1분에 230~270자 정도로 말하라고 한다. 사실 30~70 음절의 말을 더 하는 것은 내용을 파악하는 데 그리 부담이 되지 않는 음절이다.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들은 1분에 450~500 음절로 말한다. 아주 빠른 속도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에 비해 큰 소리로 말한다.

대화를 나누는 인원, 대화를 나누는 장소에 따라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은 당연하다. 많은 사람 앞에서 혹은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를 때는 큰 소리로, 적은 인원의 사람과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들은 비교적 큰 성량의 음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평소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마치 멀리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큰 소리로 말하고,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경우도 잦다.

라)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에 비해 거센소리, 된소리가 들어간 어휘나 발음을 많이 사용한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된소리(ㅍ ㅌ ㅊ ㅍ ㅍ), 거센소리(ㄷ ㅌ ㅌ ㅍ)의 발음이 나는 어휘를 많이 사용한다. 그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는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발음하지 않는 단어의 경우도 세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남한 사람들 중에도 높거나 빠르게, 혹은 크거나 거센 소리로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는 어느 한 가지나 두 가지의 특성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고, 빠르고, 크고, 거센 소리로 말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이처럼 이들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는 소리는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들을 수 없게 만든다. 인내심이 필요할 정도로 신경이 쓰이게 한다. 그 결과 무슨 말을 하는지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의사소통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특징은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선입견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데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남한 사람과 다른 음성학적 특징 때문에 남한 사람들이 북한 이탈 주민에게 쉽게 호감을 갖지 못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높거나 빠른 음으로 말할 경우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진지하지 않은 가벼운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큰 목소리나 거센소리로 말할 경우에는 무슨 일이든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이미지를 굳히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심한 경우에는 교양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2.3. 문화적 측면 - 의사 표출 방식의 문제

남북한의 정치적·사회적 환경의 차이는 남북한의 화법도 달라지게 한 것 같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정착 초기에 사회적응의 어려움에 언어 장애를 꼽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되는데,¹³⁾ 이는 서로의 화법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13) 통일부에서는 1년에 두 차례, 북한 이탈 주민을 채용한 회사를 대상으로 고용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필자도 몇 차례 실태 조사에 참여했다. 그런데 남북한 출신 직원이 서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은 문화적 관습(코드)이 서로 맞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고, 문화적 코드가 맞지 않은 사례 중에는 의사 표출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도 상당수였다.

14) 남북한 간에 어휘나 표현의 차이로 생기는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여기서는 거절 화법, 찬사(칭찬) 화법, 화해 화법, 명령 및 지시 화법 등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 이탈 주민들은 돌려서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직설적이거나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은 남한 사람들이 정중하게 거절하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이중 부정의 결과에 난감한 태도를 취할 때가 있다. 반대로 북한 이탈 주민들의 호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직설 화법 때문에 남한 사람들이 난감한 태도를 취할 때도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은 ‘싫지는 않은데……’라는 애매모호한 말 때문에 난감한 것이고, 남한 사람들은 호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북한 이탈 주민의 ‘싫어요’라는 직설 화법 때문에 난감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화법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환경과 화법 간에는 일정한 상호 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것은 북한의 환경과 그에 따른 화법의 특징이다.

가. 당성·노동 계급성·인민성에 대한 이해와 화법

북한이 요구하는 인간형은 ‘당과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충성심을 당과 인민에게 드러내야만 할 기회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충성심을 좀 더 강하게,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확신 있게,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내는 방법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직설적이고,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출하는 데 익숙하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단도직입적으로 의사를 표출하는 직접 화법, 직설 화법을 구사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충성심 드러내기에 대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한다.

나. 생활 총화에 대한 이해와 화법

생활 총화란, ‘사업이나 생활의 진행 과정과 그 결과를 분석하고 결론지으며 앞으로의 사업과 생활에 도움이 될 경험과 교훈을 찾는 것’이라고 한

다. 사전적 의미는 그렇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생활 총화란 번거롭고, 시끄럽고, 혼나는 자리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고 한다. 기간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다양한 종류의 총화가 있기에 자주 모여야 한다는 점에서 번거롭고, 이런저런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느라 모두들 분주하기에 시끄러우며, 상대방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받는 경우가 잦기에 혼나는 자리라는 것이다.

생활 총화에는 자기비판과 호상 비판이 있다. 자기비판은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고, 호상 비판은 상호 간에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한다. 자신의 잘못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는 지적받은 잘못을 인정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행여 심각한 문제로 되어서 사상 투쟁¹⁵⁾의 대상이라도 된다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잘잘못의 판단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북한에서는 더욱더 그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한 노력,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호상 비판은 상호 간에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남이 나의 잘못을 지적했다면, 나 또한 남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 직위,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정도라고 한다. 사정이 이와 같기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남한 사람들보다는 약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다. 보위원·안전원·인민반장·직장장 등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화법

‘보위원’은 국가정보원 직원, ‘안전원’은 경찰에 해당하는 직업을 말한다. ‘인민반장’은 반장, ‘직장장’은 공장장 정도에 해당하는 직위이다. 남한에서

15) 반동적 사상을 반대하여 벌이는 투쟁. 어떤 한 사람의 잘못(죄)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성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는 직업과 직위를 참고하기는 하지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북한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이다.

최의 유무를 떠나 보위원이나 안전원이 지나가면 눈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권세는 대단하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인민반장, 직장장 등은 인민들의 일상생활이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가까운 위치에 존재하기에 다소 조심스러운 관계라고 한다. 사상적으로, 생활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면 이런저런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적당히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나를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와 같기에 북한에서는 크든 작든 권세를 잡고 있는 대상을 상대할 때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찬사 혹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한다. 나이보다도 직업 및 직위에 의해서 존댓말 사용 유무를 결정지을 정도로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하다고 한다.¹⁶⁾

이와 같은 상황은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상을 대할 때 찬사나 칭찬, 감사 화법을 널리, 과하게 쓸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한다.¹⁷⁾

라. 방송·선전 선동대·예술 소조 등에 대한 이해와 화법

북한의 방송은 선전 선동을 위해 존재한다. 선전 선동대와 예술 소조 등도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당이 지향하는 정책을 인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존재한다. 선전 선동이란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는 과업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내용을 주입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어

16) 일반 인민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은 위치에 있게 되면 반대로 군림하고자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17) 어떤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 사람들의 칭찬이 처음에는 거북하였다고 한다. 평생 높은 직위에 있어 보지 못해 가족 외의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도 상대가 칭찬을 하면 지금도 여전히 거북하다고 했다. 남한 사람도 북한 사람들의 칭찬, 찬사, 감사 화법을 거북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과한 표현 때문이다. 북한 이탈 주민은 칭찬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남한 사람들은 지나친 찬사에 거리를 느끼는 것이다.

조와 화법을 구사해야만 하는데, 북한에서 선택한 것은 장엄하고 힘 있게, 맹세를 담아 기백 있게, 뜨거운 마음으로 절절하게 등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화법은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접한다. 텔레비전에서는 방송원(아나운서)들이, 등굣길·출근길에는 예술 소조원들이,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선전 선동 대원들이 인민들을 향해 선전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와 같기에 선전 선동을 위한 화법은 일상 대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평소 대화는 자연스럽게 하다가도 문제가 있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다소 격앙된 목소리, 다소 절절하게 말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화법을 구사해야만 ‘혁명적 인민들의 전투적 생활 감정에 맞는 것’이라는 학습의 결과가 언어 습관으로 굳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징은 남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그 무엇으로 보이게 하기도 한다.

3.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 이해하기

- 북한 이탈 주민과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한 제언

남북한 언어의 차이와 북한의 발음과 어조가 지니는 특징을 북한 이탈 주민들의 언어를 기초 자료로 하여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정치적·사회적 환경과 화법 간에는 일정한 상호 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환경에 따른 화법의 특징을 검토해 보았다.

이와 같은 검토는 북한 이탈 주민들과 오해 없는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고, 나아가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1만 9천여 명이 살고 있다. 적은 수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원을 수료한 후 사회에 첫발을 디딜 즈음, 언어 때문에 적극성을 띠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한다. 북한말을 그대로 구사했을 때 남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북한 사투리로 말을 했

을 때 이상한 듯 쳐다보며 일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 등이 그들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언어 적응도와 사회 적응도 사이의 상호 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남북한 어휘와 표현의 차이, 남북한의 화법의 차이, 상황별 대화 및 대처법, 발음 교정 등을 지도하고 있지만 이미 입에 굳어진 언어를 하나원의 3개월 교육 과정으로 완벽하게 바꾸어 놓을 수는 없다.¹⁸⁾

동독과 서독이 땅의 통일을 이루고 난 다음, 말의 통일을 하는 데 1년 6개월이 걸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동독과 서독 출신 모두가 서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 통일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면, 현재 북한 이탈 주민들만 일방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시간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남한을 선택한 이상, 남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말을 학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학습을 하고 있지만 그들만의 과제로 남겨 두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땅의 통일에 앞서 사람의 통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사람의 통일을 위한 첫걸음을 북한 이탈 주민과 원활한 대화를 하는 것에서 시작해 볼 것을 제안해 본다.

다음은 북한 이탈 주민과 오해 없이, 원활하게 대화를 하기 위한 방법이다.

- ① 북한에 없는 현상, 북한에 없는 물품 등 자본주의·민주주의 성향이 강한 어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기
 - 대중문화·대중매체·사회 복지·사회 문화·정치·경제 등은 물론이며 때로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유통되는 용어라도 북한에서 접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용어식 표현 보다는 풀이식 표현을 사용하는 배려가 필요함.

18) 북한 이탈 주민은 하나원에서 3개월의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420시간의 정규 수업 중 <남북한 언어 비교>, <표준 발음 연습>, <언어와 문화>, <외래어> 등 언어와 관련한 수업이 27시간이다. 정규 수업 외에도 원내 우리말상담실에서 언어 관련 학습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 ‘모른다고 하면 무시할 것 같아 아는 척할 때가 많음’.
 - 따라서, 내용 전달이 제대로 된 것으로 판단하고 일을 진행했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음. 내용 전달 후,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
- ② 남한말과 북한말 간에 말은 같으나 의미가 완전히 상반된 경우도 있어 서로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인식하기
- 언어 차이로 얼굴을 붉히거나 다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
 - 대화가 매끄럽지 않게 진행될 때에는 상대방과 남한말, 북한말의 차이점을 따져 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서로 곡해했을 경우, 인간관계 및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임.
- ③ 북한말의 발화적 특징만으로 북한 이탈 주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기
- 높고, 빠르고, 크고, 거센 발화 특징으로 인해 북한 이탈 주민의 성격 자체를 감정적이고, 거칠고, 급하다고 인식할 우려도 있음.
 - 발화의 특징을 북한 이탈 주민을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삼을 경우, 자칫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으므로 발화 특징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바람.
- ④ 남북한 화법의 차이는 정치적·사회적 환경 차이에서 비롯된 경향이 크므로, 북한 이탈 주민의 인품과 연결하여 오해하지 않기
- 북한의 환경과 경험에서 비롯된 습관적인 어투를 개인의 인품과 연결하지 않기.
 -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정착 초기에 보여 주는 직접 화법·비판 화법·회피 화법·복잡 화법·찬사 화법 등에 당황하지 않기.
 -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서 널리 유통되는 간접 화법·칭찬 화법·책임 화법·간략 화법 등을 구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고, 도와주기.

새터민의 남한어 적응과 언어 교육

양 수 경 (밀알복지재단)

2010년 1월 기준으로 남한에 입국한 새터민의 수가 18,000명을 넘어섰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점차 입국 규모가 증가하여 현재 해마다 들어오는 인원이 2,000명 이상이다. 이제 그 수가 증가하면서 잠깐이지만 직접 새터민과 마주치는 일도 있고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새터민을 종종 보기도 한다. 흔히 새터민의 말은 발음과 억양이 낯설어 유난히 눈에 뜨일 뿐 남한말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으며 우리와의 의사소통에 그리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한다. 그래서 새터민이 쓰는 말은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처럼 우리나라 어느 지역 방언과의 차이에 다를 바 없지 않겠느냐, 남북한 언어의 차이라는 것이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니 굳이 교육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인식이 퍼져 있다¹⁾.

그러나 새터민의 입장에서 그런 지적은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그 사람 참 유머러스한 게 분위기 메이커야”,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에서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외래어들, ‘LG마트’, ‘KB은행’ 등 어디서나 쉽게 마주치게 되는 영어식 상호명, ‘A4 용지’,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 ‘마일리지 적립’, ‘퀵서비스’ 등 북한에서 접해 보지 못한 생소한 물건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어휘와 표현들은, 남한에 첫발을 내디딘 새터민들에게 마치 외국에 와 있는 것 같은 당혹감을 준다고 한다. 비록 남북한이 같은 언어를 쓴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6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사회 문화적 배경하에 이질화된 언어로 인해 새터민들은 정착 초기, 생활 전반에서 불편과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1) 김석향[2005. “남북한 언어 이질화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의 차이 고찰-남북관계 전문가 집단과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8(2).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도 남한 사람들이 인식하는 언어 이질화 정도와 새터민들이 느끼는 이질화 정도에 큰 격차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들이 언어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사실상 언어의 차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언어로 표현되는 남한의 생활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북한에서 사용하지 않던 물건이 많고, 남한에서는 보편화된 것들인데 자신들은 처음 접하는 낯선 생활 방식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언어를 매개로 남한의 생활 문화와 지식을 교육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 교육은 새터민들이 의식주 생활, 쇼핑, 교통 기관 이용, 통신 기기 구입과 사용, 관공서 이용 등 남한에서의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회 적응 교육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언어의 차이, 영어나 외래어식 표현 때문에 새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원의 범위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남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상황을 두렵게 여기게 됨으로써 새터민들의 사회적 고립이 가속화된다. 즉 언어가 서로 달라 남한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필수적인 최소한의 의사소통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새터민들이 있는 것이다. 언어의 장벽, 그로 인한 보이지 않는 심리적 장벽을 언젠가는 넘어서야 주변 남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가 시작될 수 있고, 이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생활, 교육, 취업, 직장 생활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입수할 뿐만 아니라 문제 상황에서 필요한 사회적 지지도 받을 수 있다²⁾. 이런 의미에서 언어 교육은 새터민들이 남한 사회 속으로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사회 통합 교육의 역할도 한다.

이 글에서는 하나원 수료 후 새터민들의 언어 적응 실태와 언어 교육의 필요성을 간단히 살펴본 후, 하나센터나 복지관, 취업 지원 단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언어 교육 내용을 대략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Bidet(2009). "Social capital and work intergration of migrants: The case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ASIAN PERSPECTIVE 33(2).

1. 언어 적응 실태

1.1. 심리적 문화 적응 유형과 언어 적응

새터민의 언어 적응 양상은 개인의 심리적 문화 적응 양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먼저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이주민들의 심리적 문화 적응 유형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새터민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사회 및 경제 체제의 이질성에서 비롯된 문화적 차이가 큰 서로 다른 문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질적인 두 문화 집단이 만났을 때 결국 문화 적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집단 속의 한 개인의 심리적 변화 유형은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네 가지라고 한다³⁾. ‘통합’은 자신의 원문화를 유지하면서 주류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형, ‘동화’는 자신의 원문화는 포기한 채 주류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는 유형, ‘분리’는 원문화만을 고수하면서 주류 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유형, ‘주변화’는 자신의 원문화도, 주류 사회에도 거리를 두고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않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유형을 말한다.

표 1. 심리적 문화 적응 유형(Berry, 1997)

		원문화 유지	
		높음	낮음
주류 문화 참여	높음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낮음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다른 나라 이주민들의 사회적응 연구들을 보면, 이 중 가장 개인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적응 유형으로 ‘통합’을 들고 있다. 그러나 새터민의 경우, 아직까지 남북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고유한 문화적 행동과 양식을 유지하려면, 감당해야 할 심리적 부담이 무

3) Berry, J. W(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척 커지게 된다. 따라서 새터민들은 남한 사회에서 통합 전략보다는 동화적인 전략을 선택하거나 분리, 주변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오히려 남한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는 쪽이 더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이에 따르는 일방적 동화 압력으로 인한 적응 스트레스는 새터민들의 자기 가치감 발견과 긍정적인 정체감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⁴⁾. 실제 연구에서도 동화나 분리 전략을 사용할수록 적응 수준(자기 효능감, 심리적 적응 수준)이 높았고, 통합 전략인 경우 중간 수준, 주변화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낮은 적응 수준을 보였다⁵⁾.

새터민의 심리적 문화 적응 유형에 따라 남한어 학습의 동기, 남한어 습득 정도, 실제 남한어 사용 정도 등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언어 적응 양상을 보일 것이다. 아직까지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 적응 유형과 언어 적응 유형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없지만, 대략적인 상관관계는 추측이 가능하다. 주류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남한어 습득이 불가피하므로 ‘통합’이나 ‘동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새터민의 경우 더 적극적인 남한어 학습을 하리라 예측할 수 있다. 이들 유형의 경우 자발적으로 신문, 방송, 주변 남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남한어를 습득해 갈 가능성이 크며, 언어 교육 프로그램 참여도도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을 것이다.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할 그룹은 ‘분리’나 ‘주변화’ 유형의 새터민들 중, 주류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의도가 있어도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는 분들이다. 이분들이야말로 자발적인 언어 습득이 어려운 분들이고 더더욱 언어 교육의 필요가 절실한 분들이라 할 수 있다.

1.2. 언어 적응 경과

새터민들은 하나원을 수료한 이후에도 남한어를 배워 사용하기 위해 적극적 자세를 보인다. 남한어를 사용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는 경우(44.9%)

4) 김은경, 허석재(2010).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심리적 적응—문화 적응의 상호주의를 향하여”. 민족연구 41.

5) 채정민, 이종한(2004).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남북한 문화 이질성: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0(2).

와 ‘조금 노력’하는 경우(39.3%)가 ‘거의 노력하지 않거나’(10.1%) ‘전혀 노력하지 않는’(5.6%)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⁶⁾. 이들이 남한어를 사용하고 자 하는 목적은 ‘조속한 사회적응’을 위한 경우(84.0%)가 가장 많고, ‘인간 관계의 원활’(58.7%), ‘신분 감추기’(32.0%), ‘생활 정보 취득’(29.3%), ‘취업의 용이’(18.7%)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한어 학습을 위한 방법으로 ‘방송의 시청취’(60.0%), ‘주민과의 대화’(31.1%), ‘특별 교육 수강’(18.9%), ‘독서’(16.7%) 등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영어와 한자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회가 닿는다면 영어 교육을 받고 싶다는 희망자가 82.1%, 한자 교육 희망자도 80.2%에 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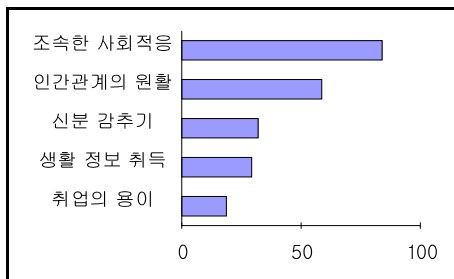


그림 1. 새터민의 남한어 사용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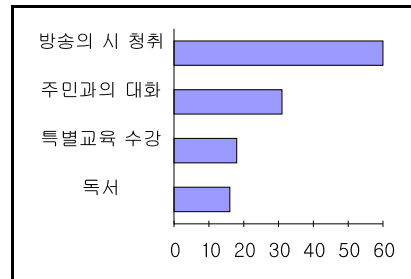


그림 2. 새터민의 남한어 학습 방법

이렇듯 대다수의 새터민들은 남한인들과의 접촉, TV나 라디오, 인터넷, 신문, 책자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어 가며 남한의 말과 문화를 배워 가고 있다. 청소년층을 비롯한 젊은이들은 그나마 매체에 대한 접근이 쉽고 학교 적응과 취업이라는 저마다의 동기도 커서 그 나름대로 습득이 빠른 편이나, 그 과정에서 언어로 인한 부적응, 오해, 차별 등의 부정적 경험들을 겪으면서 남한 사회와 남한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남북한 언어 차이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게 되기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56.8%가 2년 이내에 언어 차이를 어느 정도 극복한다는 보고가 있다⁷⁾. 또 다른 조사에서는 52%가 2년 이내라고 하였으나, 3년 이상이

6) 정경일(2001). 남한 정착 북한 출신 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 문화관광부.

걸린다고 응답한 비율도 37%로 나타났다⁸⁾. 이는 언어 적응의 기준이 개인적인 기대치에 따라 주관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 진학 후 취업을 예상하는 청소년층, 고학력자와 같이 직업 기대치가 높은 대상자들은 언어 적응의 기준도 높아 예상되는 언어 적응 기간을 길게 잡고 있었다⁹⁾. 반면 주로 생산직에 종사하는 저학력자들은 언어 적응의 기준이 높지 않아 언어 적응 기간을 짧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대상자의 학력 수준, 직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언어 적응 교육이 차별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실제 문장 내 어휘를 주고 그 어휘를 아는지 검사한 연구에서는, 거주 기간이 길수록 어휘력이 좋아졌는데, 남한에 19개월 이상 거주한 그룹은 남한 사람의 수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2. 하나원 퇴소 후 언어 교육의 필요성

하나원 퇴소 후 언어적인 면에서 후속 교육 체계 또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퇴소 후 교육 및 지원이 더욱 의미를 갖는 이유는 하나원에서 교육 효과가 교육생들의 심리적 상태나 동기 수준 등 학습 준비도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원 교육 기간에 교육생들은 하나원 퇴소 후 직면하게 될 생계 문제,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죄책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다. 더구나 남한의 이질적인 사회 문화, 그를 반영하는 이질적인 언어 환경을 아직 접하지 못한 상태라 언어 교육의 필요성 자체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해 학습 동기가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다. 하나원 언어 교육에 대한 수료생들의 평가에서 하나원에서 배울 때는 좋았으나 하나원을 나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족함과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는 반응은 바로 이러한 원인 때문일 것이다.

7) 정경일(2001). 같은 책.

8) 문금현 외(2006). 새터민 언어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 보고서.

9) Kim Kyung-Ryung(2007). "A Study of Language Assimilation Process for North Koreans in South Korea".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5(4).

10) 문금현 외(2005).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 보고서.

새터민들이 하나원을 수료한 이후에 새터민들을 위한 공적인 언어 적응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다만 자유시민대학, 이북오도청, 탈북자동지회, 탈북민취업지원센터(현 밀알복지재단) 등 새터민 지원 단체에서 사회 적응 교육 또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발음 및 억양 교정, 외래어 학습을 포함하는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신청자 위주로 진행되므로 교육의 혜택을 받는 새터민의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새터민의 언어 적응 문제와 그 필요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진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새터민들은 하나원 퇴소 후 이질적인 남한의 언어 환경에 노출되면서 언어 교육의 필요는 절실히 느끼지만, 당면한 생계와 취업의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

따라서 대다수의 새터민들은 하나원 수료 후 체계적인 언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남한의 말과 문화를 배우고 있다. 대략 2년여가 되면 어느 정도 언어 차이를 극복하고 적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과정에서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 불안, 차별, 무시 등의 부정적 경험들을 겪으면서 남한 사회와 남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겪는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도록 수료 후 지속적인 언어 적응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¹¹⁾

3. 언어 교육 방안

먼저 새터민 언어 교육은 다문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새터민은 이주 노동자나 국제결혼 이주 여성과 달리 한국어가 제1언어이므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처럼 모든 개별 어휘와 문법을 학습해야 하

11) 이는 현행 새터민 정착 지원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실현성 높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하나원 수료 후 지역 사회 정착 지원을 담당하는 하나센터에서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언어 적응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한다.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지난 60년간 서로 다른 정치, 경제적 체제 하에 독자적인 사회를 구축해 온 결과 이질화된 두 사회의 차이로 인해 새터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받는 문화적 충격은 자본주의 사회 출신의 한국어 학습자보다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새터민을 위한 언어 교육에는 이들의 다문화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즉 이들에게 낯선 사회 문화적인 경험과 관련된 의사소통 상황이나 어휘들을 최우선적으로 교육 내용에 포함시킬 뿐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을 때의 인사말을 가르친다면, 한국의 장례 절차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다.

또한 새터민 언어 교육은 의사소통 상황 중심의 교육일 때 효과적이다.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과 괴리된 어휘의 단순 제시와 암기는 흥미나 동기를 유발하기 어렵거니와 실제 생활에서 곧바로 활용되기가 어렵다. 자신이 당면한 실제 생활의 의사소통 상황에 필수적인 어휘들을 최우선적으로 다루되, 의사소통 상황 내에서 관련 표현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맥락 안에서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의사소통 상황들은 생소한 문화적인 경험과 연관된 상황, 새터민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을 선정하도록 한다.

이제 하나원 퇴소 후 언어 교육의 기본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3.1. 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실제적인 참여도, 효율적인 운영 등을 고려해 기관별 언어 교육 대상자와 프로그램 구성을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 기관별 언어 교육의 개요

기관 유형	교육 대상	교육 목표	교육 내용
하나센터 및 복지관	하나원 수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의식주, 쇼핑, 교통, 통신, 관공서 이용 등 남한에서의 기본 적인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회 적응 차원에서의 언 어 교육	- 자주 접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되는 기 본 어휘 - 중요 생활 문서 서식 - 전형적인 화용 표현 (요청, 거절, 사과 등)
취업지원 단체 (직업능력 개발훈련 단체)	직업 훈련 후 취업예정자 또 는 북한·제3국 에서의 경력을 활용하여 전직 예정인 사람	취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직업훈련 차원에서 언어 교육	- 구직, 직장 생활과 관 련된 어휘, 의사소통 상황, 화법 - 띄어쓰기, 맞춤법 등 어문 규범 - 표준어 발음 및 억양

먼저 하나센터와 지역 복지관에서는 하나원 수료 직후의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적응 지원 프로그램 안에 언어 교육을 포함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수료 후 새터민 교육은 주로 직업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직업 교육에 앞서 새터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익힐 수 있는 교육으로서의 언어 교육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실제 면담을 진행해 보면, 언어 문제로(또는 그와 연관된 사회 문화적 경험과 지식 부족으로) 아직도 삶의 반경을 제한 받고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로 그 필요성이 증명된다.

입국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미용실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머리 모양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당혹스런 결과를 당한 후 다시는 미용실 출입을 하지 않는다는 사례,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물건을 보내고 싶은데 국제 우편 보내는 법을 몰라 못 보내고 있다는 사례, 극장에 가고 싶지만 관련 용어와 이용 방법을 몰라 못 가고 있다는 사례, 옷 치수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 옷을 입어 볼 수 없는 의류 매장에서는 옷을 사지 못한다는 사례, 옷의 색깔, 디자인, 소재 등에 대해 자세히 점원에게 물어 보고 사고

싶지만 어휘와 표현을 몰라 옷 가게에 들어가면 가격을 묻는 것이 대화의 전부라는 사례도 있었다. 언어 문제 때문에 필수적인 생활 환경 이외로는 접근이 어렵고, 그 안에서마저 제한된 수준의 의사소통만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다.

취업 지원 단체들의 경우, 훈련 후 신규 취업이나 전직 예정인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 훈련 차원에서 언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새터민들의 직장 생활 초기 적응 기간에는 언어 문제와 편견 및 차별 대우가 갈등의 주요소로 드러난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문화의 문제, 즉 직장 내에서 생기는 문화적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가 직장 생활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라고 한다¹²⁾. 먼저 외래어를 비롯한 언어 장벽을 넘지 못하면 ‘사오정’ 소리를 들으며 기본적인 직장 생활이 불가능하다. 또한 직무 수행을 하는 데 필수적인 영어와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아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남북한 직장 문화 차이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요한데 특별히 ‘솔직한’ 소통을 중요시하는 북한의 소통 방식에 비해 ‘상대를 배려하여 돌려 말하는’ 남한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구직과 직장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어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영어, 남북한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도록 한다. 이력서, 자기 소개서를 비롯해 문서 작성 업무에 필요한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어문 규범과 표준 발음과 억양의 교육도 병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3.2. 교육 내용

3.2.1. 의사소통 상황

교육 대상자에 따라 빈도 높고 중요한 의사소통 상황을 먼저 선정하도록 한다. 다음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들을 참고하여 만든 상황 목록(일부)이다.

12) 조정아·정진경(2006). “새터민의 취업과 직장 생활 갈등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15(2). 통일연구원.

표 3. 주요 의사소통 상황의 예

장 소	의사소통 상황(구어 및 문어)
모임 또는 단체	모임 또는 단체에서 자기 소개하기
식당	(패스트푸드점) 음식 주문하기, 추가 주문하기, 계산하기, 배달 음식 주문하기
미용실	원하는 머리 모양 설명하기, 계산하기
마트 및 편의점	식료품 및 생활 필수품 구매와 관련된 말하기, 계산하기, 마트 전단지 이해하기
의복류 가게	상의의, 속옷, 신발, 모자, 가방, 액세서리 구매와 관련된 말하기(치수, 색깔, 디자인, 재질 등과 관련된 어휘)
화장품 가게	화장품 구매와 관련된 말하기(기초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와 기능을 설명하는 어휘)
우체국	등가소포 보내기와 관련된 말하기, 택배와 관련된 말하기
은행	통장 개설, 카드 신청, 송금과 관련된 말하기, 현금 자동 지급기 메뉴 이해하기
주민 센터	등본, 초본 등 각종 문서 발급 신청과 관련된 말하기, 각종 신고 및 사회 복지 혜택 문의와 관련된 말하기
극장	예매 또는 현장 매표와 관련된 말하기, 영화 포스터나 광고지 이해하기
기차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기차표나 고속버스표 예매, 현장 매표, 기차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이용과 관련된 말하기
병원	진료 신청, 증상 말하기, 수납, 처방약 구매와 관련된 말하기
학교 또는 학원	교사와 상담하기, 가정통신문, 학원 광고지 및 시간표 이해하기
구직 소개소	인터넷과 신문의 구인 광고 이해하기,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 작성하기, 전화로 구직 정보 확인하기, 취업 면접과 관련된 말하기
직장-전화 응대	전화로 통화를 원하는 사람 연결하기, 전화를 받을 때 자신의 신분 밝히기, 전화 건 사람의 이름이나 회사명 받아 적기, 자동응답시스템(ARS) 응답하기, 잘못 걸려 온 전화 처리하기, 내선 연결하기
직장-요식 서비스	손님 응대, 자리 안내, 주문받고 전달하기, 계산하기와 관련된 말하기

3.2.2. 어휘

서로 공유되는 부분과 상이한 부분을 갖고 있는 ‘남북한 어휘 체계’라는 큰 틀 안에서 새터민에게 필수적인 교육 어휘는 다음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표 4. 필수적인 교육 어휘 분류

분류	설명	예
남한에서만 사용되는 어휘	- 남한에만 존재하는 문물, 현상, 개념 등을 가리키는 어휘 - 새터민에게 생소한 사회 문화적 경험과 관련된 어휘 - 외래어의 비율이 높음.	‘치맛바람’, ‘청와대’, ‘과학고’, ‘공채’, ‘인터넷 뱅킹’, ‘퀵서비스’, ‘멤버십 카드’ 등
기본 어휘 중에서 남북한 간에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어휘	- 남북한 공통으로 존재하는 물건, 현상, 개념 등을 가리키는 어휘 중 서로 형태가 다른 것 - 남북한어 대응어 쌍으로 제시 가능	‘과밥 : 도시락’, ‘빨래집 : 세탁소’, ‘랭동기 : 냉장고’
남북한 간에 서로 다른 의미나 어감으로 사용되는 어휘		‘바쁘다’, ‘늪은이’, ‘일없다’, ‘코트’ 등

위에서 선정된 중요 의사소통 상황 내에서 사용될 만한 대화문과 학습 어휘들을 뽑아 본다. 새터민도 다문화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들의 대화문과 학습 어휘들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할 수도 있으나, 새터민의 필요에 초점 맞추기 위해서 <표 4>의 세 가지 교육 어휘 부류를 기준으로 학습 어휘를 선정한다. ‘국립국어원’(2000)의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어휘》와 ‘오미정 외’(2007)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외래어》를 참고할 수 있다. <표 5>은 한 연구에서 제시한 새터민들이 낯설어하는 문화 경험과 관련된 어휘 목록이다.

표 5. 문금현(2007)¹³⁾에서 제시한 이질 문화 관련 어휘 목록

1.1. 공공 장소 방문 시 필요한 어휘 (1) 동사무소 대리인/사망신고/위임장/인감증명/전입신고/전출신고/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주민등록초본/출생신고/호적등본/호적초본/혼인신고 등 (2) 병원 간호사/레지던트/소견서/약처방전/예약증/일반진료/의료보험증/응급실/인턴/입원/장례식장/재진/전공의/전문의/전화예약/진단서/진료의뢰서/진료카드/초진/퇴원/특진/CT 촬영(컴퓨터 단층 촬영)/MRI(자기 공명 영상) 등

13) 문금현(2007). “새터민의 어휘 및 화용 표현 교육 방안”. 새국어교육 76. 한국국어교육학회.

(3) 우체국

등기/빠른우편/소포/속달/우편번호/우표/주소/택배/특급우편 등

(4) 은행

계좌번호/공인인증서/금리/대출/도장/번호표/비밀번호/수수료/신규/신용카드/유효기간/이자/이율/이체한도/인증번호/인터넷뱅킹/입금/입출금기/자동이체/잔액조회/재발급/저축예금/적금/정기예금/주식펀드/지로납부/직불카드/청약예금/출금/출금통장/카드번호/텔레뱅킹/통장/현금서비스/현금카드/홈뱅킹/환율/환전 등

1.2. 일상생활 관련 어휘

(1) 외식 문화

햄버거, 피자, 스파게티, 패밀리 레스토랑/ 로, 미디엄, 웰던/ 스몰, 레귤러, 라지/ 스프/ 토마토소스, 화이트소스, 칠리소스/ 사이드메뉴, 세트메뉴/ 테이크아웃/ 양념치킨, 프라이드 치킨 등

(2) 아파트 관련

가스요금/관리비/관리실/다용도실/방충망/변기/베란다/블라인드/비데/세면대/세입자/수도요금/싱크대/아파트/에어컨/연체료/욕조/월세/전세/전기요금/커튼/케이블TV/하수구 등

(3) 포장 이사

전적/보관료/보관창고/사다리차/살림살이/수고비/운송료/이삿짐센터/컨테이너/일반이사/전액배상/지게차/추가비용/포장이사/특수포장/해외이사 등

(4) 통신 생활

① 일반 전화

가입비/공과금/관할구역/국제전화/기본요금/납기일/명의변경/무선전화기/본인명의/서류/서면/설치비/시내전화/시외전화/연체통지서/유선전화기/이동전화(무선전화, 휴대전화)/인감증명서/전화국/전화계약해지/전화신청/통화료/표준요금 등

② 휴대 전화

단말기/문자메시지/액정/키편요금제/폰카(휴대폰카메라) 등

③ 택배

개인화물운송/고객/당일/물류센터/배달/배달사고/배당특송/분실/서비스리콜제/실비/예약접수/택배비/운임료/전용박스/지체되다/쿨택배/퀵서비스/택배/테이프/특송서비스/파손/환불 등

(5) 주차 관련

갓길(도로)주차/거주자우선주차제/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무료주차장/불법주차/불법주차과태료/불법주차스티커/불법주차차량/실내주차장/옥외주차장/유료주차장/이면도로주차/이중주차/주차금지구역/주차단속예고제/주차단속요원/주차전쟁/지정주차/차고지증명제/차량견인 등

(6) 쇼핑 관련

결제대금/교환하다/대금청구서/대형할인매장/마일리지카드/멤버십카드/무이자할부/상설할인매장/세일/수수료/신상품/신용카드/신제품/영수증/예약판매/유효기간/인터넷쇼핑/일시불/재고품/정상가/정상가격/지불하다/처리하다/청구하다/카드/카드결제/카드명세서/통신판매/품질/하자/할인/할인가격/현금/현금결제/홈쇼핑/환불/3개월할부 등

3.2.3 생활 문서 서식

가정 통신문/ 경조사 봉투/ 구인, 구직, 임대 광고/ 기차, 고속버스 승차권/ 대금 영수증/ 도서관 이용 신청서/ 마트 세일 전단지/ 메뉴판/ 명함/ 신용 카드 신청서, 분실 신고서/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 영수증/ 약 봉투/ 약도/ 요리법/ 우체국 택배 요금표/ 원, 막대 그래프 등 통계 문서/ 일기 예보 그림/ 입금증/ 전세 계약서/ 제품 사용 설명서/ 차용증/ 통장 개설 신청서, 분실 신고서/ 투약 주의사항/ 편지 봉투/ 행사 안내문/ TV 편성표

3.2.4. 생활 필수 영어

시리즈명(예: 스타워즈 I, II, III)/ 요일명(MON/ TUE/ WED/ THU/ FRI/ SAT/ SUN)/ 혈액형(O, A, B, AB)/ A4, B5, A3/ AM, PM/ APT, 삼환APT, 삼환A, 삼환@/ ARS/ TEL/ HP/ AS/CD기, ATM기/ CENTER/ F층 /1F/ ID/

E-MAIL/ MADE IN KOREA/ MAN, WOMAN/ U.S.A./ CHINA/ JAPAN/
MAX, MIN/ MRI/ CT/ X-ray/ NO./ OPEN, CLOSE/ OST/ POWER/
ON,OFF/ S, M, L, XL/ SAMSUNG, LG, HYUNDAE/ SET/ TV/ KBS, MBC,
SBS, EBS/ YES, NO

3.2.5 단위명 및 생활 기호

% / ₩, ¥, \$ / °C / cm, m / 인치 / kcal, cal / kg, g, 근 / km/h / l, ml /
teabag /스푼/ 컵 / 인분 / 인용 / &/ ® / 우, ♂ / ♀ / 교통 표지판 / 세탁
기호 / 십자가(교회, 약국, 병원 표시) / 재활용품 분류 배출 기호

3.2.6.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및 전형적 화용 표현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남한 사람에게는 감정을 상하게 하고, 새터민들도 남한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을 보고 당황하거나 놀라며 감정을 상하게 된다. 이는 남한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 오해를 일으키거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고, 새터민들이 북한에서는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던 칭찬과 감사 및 사과 표현들을 상황별 예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또한 상대방의 시간, 공간, 의사 결정권 등 개인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것이 남한의 대인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면서,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요청할 때는 가급적 상대의 의사, 가능성을 묻는 방식이 더 예의 바르게 인식된다는 사실을 덧붙인다. 거절을 표현할 때에도 거절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상대방의 기분이나 마음을 헤아려 간접적으로 거절하며 안타까움의 표현, 대안 제시,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설명을 덧붙이도록 교육한다. 교육 시, 직설적인 화법으로 인해 갈등을 빚거나 오해받았던 사례 등을 소개하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실제 상황을 설정해 주고 옆 사람과 실제로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면 효과적이다.

3.3. 교수법 관련

실제적인 언어 훈련 및 연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교수법이 효과적이며, 가능하다면 현장 중심의 체험 학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새터민들은 오랜 기간 주의 집중하기가 힘들고 남한의 학습 언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동영상 등의 시각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장기 기억에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문서들과 인터넷 화면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남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광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광고는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나아가 다양한 문화를 선도하는 사회적 거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면 광고, TV 광고 등을 학습 자료로 활용해도 효과적이다.

새터민이 선호하는 강의 형태는 실제 사례 중심의 설명 방식이며, 알아듣기 쉬운 말로 풀이해 주는 교수 방식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강의 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되었을 때 더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수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새터민들은 학습 시 자주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경향이 있다. 가급적 질문의 기회를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적극적 학습이 되도록 유도하며, 특별히 도움요청을 꺼리는 새터민들의 경우 정보 습득을 위한 인터넷 검색 활용법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도록 한다.

부 록

- 옷 가게에서 -

수진: 2층 에스컬레이터 앞에 있는 가게로 가 볼래?

영희: 그래.

수진: 와, 여기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다 있네.

영희: 그러게.

점원: 어서 오세요 손님, 뭘 찾으세요?

수진: 55사이즈로 괜찮은 재킷 하나 보여 주실래요?

점원: 이게 요즘 판매율 1위 상품이에요. 요즘 유행대로 어깨에는 살짝 각을 줘서 세련돼 보이죠? 앞 단추 부분은 오픈해서 입어도 예쁘게 사선 처리가 되어 있지요. 안에 입으신 체크 무늬 셔츠하고도 잘 어울리는데요.

수진: 세련되어 보이네. 근데 너는 블랙 계통이 너무 많으니까 화이트가 낫지 않을까? 같은 디자인으로 화이트 좀 보여 주실래요?

점원: 그럼, 화이트로 입어 보세요. 저기 탈의실 있어요.

영희: (옷을 입고 나온다.)

점원: 와, 연예인 뺨 치게 예쁘시네요. 날씬하셔서 몸매 라인이 드러나는 게, 너무 예쁘시네요. 모델하셔도 되겠어요.

수진: 그래. 정말 잘 어울린다. V라인, S라인 다 잡아주네.

영희: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얼마지요?

점원: 요즘 10% 세일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입니다. 회원 카드 있으시면 5% 더 할인해 드려요. 계산은 현금으로 하실 거예요, 카드로 하실 거예요?

영희: 카드로 할게요. 여기 회원 카드 있어요. 그리고 적립도 되지요?

점원: 예, 1% 적립됩니다. 카드 먼저 긁고 쇼핑백에 넣어 드릴게요. 자, 여기 사인해 주세요.

영희: (사인한다.)

점원: (물건을 건넨다.) 네, 감사합니다. 예쁘게 입으세요.

영희: 네, 많이 파세요.

점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CATEGORY
여성 의류

2010 TREND ITEM

패션수영복/비치웨어

원피스

티셔츠

블라우스/셔츠

가디건

자켓/점퍼

바지

청바지

조끼

니트/스웨터

스커트

미니스커트

언더웨어

패션트레이닝복

코디세트

빅사이즈

정장

데마의류

모피/Fur/코트

인기 CATEGORY

SUMMER BEACH WEAR

트렌디한 LONG 아이템전~



트렌디한 도트 원피스
37,800



잉글랜드 원피스
29,800



이중 매쉬 엠티 셔츠
34,000



LOVE 미니멀 T
15,800



크레파스 티셔츠
19,800



실룩 치마바지
25,900



오프런팅 치이나 블라우스
16,900



하이웨스트 헛골츠
12,900

COLOR HOLIC

여름가디건

원피스

미니스커트

티셔츠



슬림 가디건



마크 컬러배색 가디건(3컬러)



일자에 가까운 슬림핏으로 포켓을 더



06012 상큼한 하임 CD

<그림 1> 학습 자료 1



<그림 2> 학습 자료 2

(출처: 강현화 2006. Korean Picture Dictionary. 다락원)

생활 속 외래어

(출처: 오미정 외 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외래어. 월인)

1. 다음 빈 곳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십시오.

<보기> 다이어트 껌 깃스 더치페이 파이팅

- (1) 그 야구선수는 경기장에서 항상 _____ 을 씹고 있다.
- (2) 친구들과 갈비를 먹고 나서 갈비값은 _____ 로 계산했다.
- (3) 20대 여성이 무리하게 _____ 를 하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 (4) 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큰소리로 _____ 을 외쳤다.
- (5) 계단에서 넘어져서 두 달 동안 팔에 _____ 를 하고 지내게 되었다.

2. 다음 밑줄 친 것과 의미가 비슷한 단어를 고르십시오.

- (1) 공항에 도착하니 우리의 여행을 도와줄 안내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① 여행가 ② 가이드 ③ 그룹 ④ 도어맨
- (2) 식사를 끝내자, 식당 주인이 특별한 디저트를 내왔다.
① 간식 ② 후식 ③ 도넛 ④ 분식
- (3) 텔레비전을 틀 때마다 그 개그맨이 나와서 웃기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었다.
① 농담 ② 게임 ③ 장난 ④ 개그
- (4) 오늘의 게스트는 기타리스트 김철수 씨이다.
① 특별 손님 ② 음악가 ③ 탤런트 ④ 연예인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

※ 함께 얘기해 봅시다!

- 남한 사람들이 인사말로 하는 ‘빈말’(술 한잔 해요, 밥 한번 먹자 등)을 진짜 약속으로 알아듣고 나중에 실망한 경험이 있나요?
- 남한의 부탁하는 말, 거절하는 말이 북한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나는 일상생활에서 사과, 감사, 칭찬을 자주 하는 편인가요?

※ 다음을 읽고 서로 얘기를 나눠 봅시다.

- 나는 학원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원에 가니, 새로운 학생이 내가 앉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새로 온 학생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 오늘 깜빡 잊고 교재를 가져오지 않아서, 옆자리에 앉은 학생 책을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학생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1) 말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요

북한에서는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통쾌하고 시원할 뿐만 아니라, 빙빙 돌려 말하는 것보다 분명하고 솔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반면 남한에서는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것이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남북한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새터민이 사용하는 직선적인 말로 인해 새터민과 남한 사람 간에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 새터민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설적이고 솔직한 말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

활은 많은 부분이 인간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 없이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것은 마음에도 없는 말이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상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2) 상대를 배려하여 부드럽게 부탁하세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조심해 말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공책을 보여 달라는 말을 하는 경우, 나는 어떻게 말할까요? 아래에서 찾아봅시다.

- ① 공책 줘.
- ② 공책 좀 보자.
- ③ 공책 좀 빌려 줄래?
- ④ 공책 좀 줄 수 있니?
- ⑤ 공책 좀 볼 수 있을까?
- ⑥ 공책 좀 빌려 줘도 괜찮겠니?

남한에서는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③, ④, ⑤, ⑥처럼 친구의 생각을 물어보는 식으로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혹시 빌려 주기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요.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더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또 ‘좀’이라는 말을 넣어서 상대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남한 사람들에게) 무언가 부탁할 때에는 상대가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식으로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습해 볼까요?

※ 다음 상황에서 상대를 배려해서 부드럽게 부탁해 봅시다.

- (1) 음료수를 사다 달라고 부탁할 때
- (2) 운전면허 시험에 대해 알려 달라고 할 때
- (3) 물건 값을 흥정할 때
- (4) 차를 태워 달라고 할 때
- (5) 청소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할 때
- (6) 상대방에게 만나자고 할 때
- (7)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할 때
- (8) 이사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할 때

표준어 발음 교육

- 새터민이 배우는 표준어 발음 교실 -

박 성 현 (광운대학교 교양학부)

I. 국어의 표준 발음

1. 말소리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림 1에 보이는 바와 같은 입술, 혀, 코, 성대 등을 이용해 소리를 만들어낸다. 말소리는 모음일 경우 혀의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높게 하는지에 따라 나누고 자음은 말소리를 만들어 내는 자리, 말소리를 만들어 내는 방법에 따라 나눈다. 언어마다 다른 문자로 표기되는 소리들을 국제적으로 통일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IPA(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國際音聲文字)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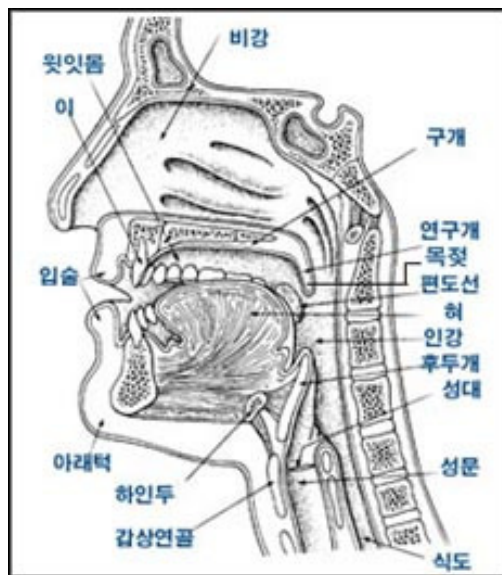


그림 1. 조음 기관

먼저 모음은 IPA기호를 이용해 그림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i/는 극단적으로 입술을 펴고 혀의 앞부분을 최대한 올린 소리이고 /a/는 혀를 전체적으로 최대한 내림으로써 혀의 뒷부분이 올라가는 상태로 내는 소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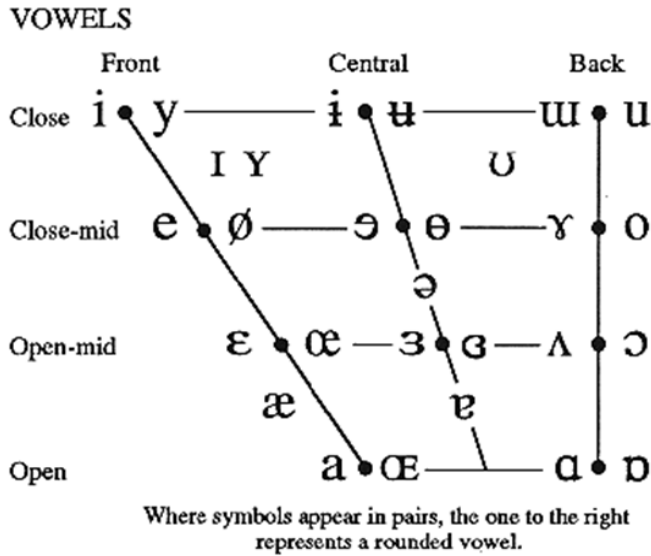


그림 2. 국제음성문자를 이용한 모음사각도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낮을수록 입도 더 벌어지게 되므로 저(低, low) 모음 혹은 개(開, open)모음이라고 하며 혀의 높은 부분이 앞이면 전설(前舌, front)모음, 뒤이면 후설(後舌, back)모음이라고 한다. 하나의 위치에 두 소리가 나란히 있는 경우 왼쪽 소리는 입술을 편 소리(평순, 平脣, unrounded)이고, 오른쪽 소리는 왼쪽소리와 똑같은 혀의 모양을 하되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내는 소리(원순, 圓脣, rounded)이다.

자음은 아래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모음에 비해 아주 다양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존재한다. 입술(兩脣音, Bilabial), 이(齒音, Dental), 잇몸(齒槽音, Alveolar), 입천장(口蓋音, Palatal or Velar), 목젓(口蓋垂音, Uvular), 목 안(聲門音, Glottal) 등 각 기관을 닫았다 열거나(破裂音, Plosive or Stop), 기관 사이를 좁혀서(摩擦音, Fricative) 만드는 소리가 일반적이며 조음할 때 공기를 동시에 코로 내보내서(鼻音, Nasal) 소리를 내기도 한다.

표 1. 자음 표기를 위한 국제 음성문자

THE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revised to 1993)												
CONSONANTS (PULMONIC)												
	Bilabial	Labiodental	Dental	Alveolar	Postalveolar	Retroflex	Palatal	Velar	Uvular	Pharyngeal	Glottal	
Plosive	p b		t d			ʈ ɖ	c ɟ	k ɡ	q ɢ		ʔ	
Nasal	m	ɱ	n			ɳ	ɲ	ŋ	ɴ			
Trill	ʙ		r						ʀ			
Tap or Flap			ɾ			ɽ						
Fricative	ɸ β	f v	θ ð	s z	ʃ ʒ	ʂ ʐ	ç ʝ	x ɣ	χ ʁ	ħ ʕ	h ɦ	
Lateral fricative			ɬ ɮ									
Approximant		ʋ	ɹ			ɻ	j	ɰ				
Lateral approximant			l			ɭ	ʎ	ʟ				

Where symbols appear in pairs, the one to the right represents a voiced consonant. Shaded areas denote articulations judged impossible.

2. 분절음

국어의 말소리를 IPA 기호를 이용해 표기해 보면 그 발음 방법을 짐작하기 쉽다. 아래 표 2는 현대 국어의 단모음 체계를 표와 모음사각도로 나타낸 것이다.

표 2. 한국어 단모음 체계(7모음 체계를 중심으로)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이[i]	(위[y])	으[i/ɯ]	우[u]
중모음	에[e] 애[ɛ]	(외[ø])	어[ə/ʌ]	오[o]
저모음			아[a/a]	

국어의 자음은 아래 표 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는데 조음 위치와 방법은 같으면서 예사소리(평음, 平音), 된소리(경음, 硬音), 거센소리(격음, 激音)로 나뉘는 세 자음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불(火): 뿔(角): 풀(草) 세 단어가 다른 소리(‘ㄱ’, ‘ㄷ’)는 모두 같고 ‘ㅂ: ㅃ: ㅍ’의 차이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과 같이 세 소리를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표 3. 국어 자음(괄호 안은 IPA 기호를 이용한 한국어 자음 표기)

	양순음	치경음	치경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폐쇄음 (파열음)	ㅂ[p] ㅃ[p'] ㅍ[p ^h]	ㄷ[t] ㄲ[t'] ㅌ[t ^h]		ㄱ[k] ㅋ[k'] ㆁ[k ^h]	
마찰음		ㅅ[s] ㅆ[s']			ㅎ[h]
파찰음			ㅈ[tɕ] ㅉ[tɕ'] ㅊ[tɕ ^h]		
비음	ㅁ[m]	ㄴ[n]		ㅇ[ŋ]	
설측음		ㄹ[l]			

3. 음절

국어의 음절은 ‘초성(初聲)+중성(中聲)+종성(終聲)’의 구조를 가진다. 초성과 종성의 자리에는 자음이 오고 중성에는 모음이 와서 ‘모음’, ‘자음+모음’, ‘모음+자음’, ‘자음+모음+자음’ 네 가지 구조 중 하나를 가질 수 있다.

모음	:	이	오	오이	우유
자음+모음	:	구	코	귀	가구
모음+자음	:	알	옷	양	

자음+모음+자음 : 강 곶 불 곡식
 값 삶 뭇

초성, 중성, 종성의 각 자리에는 둘 이상의 자음이나 모음이 겹쳐 올 수 없다.¹⁾ 초성에는 19개 자음 중 ‘ㅇ’를 제외한 18개 자음이 올 수 있고 종성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 자음만 올 수 있다.²⁾ 이러한 제약 때문에 종성으로 끝나거나 뒤에 자음이 올 때 아래 표와 같이 ‘일곱끝소리 되기’ 규칙과 ‘겹받침줄이기’ 규칙이 적용된다.

표 4. 받침의 발음

표기 자음	발음	겹받침	발음	겹받침	발음
ㄱ, ㅋ, ㆁ	ㄱ	ㄱㅅ	ㄱ	ㄹㅅ	ㄹ
ㄴ	ㄴ	ㄴㅅ	ㄴ	ㄹㅅ	ㄴ
ㄷ, ㅌ, ㅅ, ㅆ, ㅈ, ㅊ	ㄷ	ㄹㅅ	ㄷ	ㄹㅅ	ㄴ
ㄹ	ㄹ	ㄹㅅ	ㄷ		
ㅁ	ㅁ	ㄹㅅ	ㄷ		
ㅂ, ㅍ	ㅂ	ㅅㅅ	ㅂ		
ㅇ	ㅇ	ㄹㅅ	ㄱ ³⁾		

- 1) 이와 같은 음절 구조상의 제약 때문에 한국 사람이 영어의 ‘school’을 발음할 때 [스쿨]과 같이 [s]와 [k] 사이에 모음 ‘으’를 넣어서 발음하고 ‘girls’는 [걸즈]로 발음하게 된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을 당시에는 ‘ㅼ(때)’와 같은 글자가 존재했고, 각각의 발음도 다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오늘날의 한국어에서는 초성이나 종성에서 자음이 두 개 이상 함께 발음되지 않는다.
- 2) 이는 발음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표기할 때는 ‘ㅼ, ㅼㅅ, ㅼㅅ’를 제외한 16개의 자음이 종성에 쓰인다.
- 3) ‘ㄹ’ 받침 다음에 ‘-고’, ‘-게’와 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읽고[일꼬], 맑게[말께]’와 같이 [ㄹ]로 발음된다.

4. 발음 규칙

음절과 음절이 만나는 경계에서 소리가 본래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 새터민이 알아두어야 할 규칙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5. 새터민 발음과 관련된 발음 규칙표

	규칙	내 용	예
자음	연음	앞 음절 자음이 뒤 음절 모음 자리로 이 용하여 발음된다.	국어[구거] 꽃이[꼬치]
	구개음화	받침 /ㄷ, ㅌ/ 뒤에 모음 /ㅣ, ㅑ, ㅓ, ㅕ, ㅠ/가 오면 [즈, 치]로 발음된다.	같이[가치] 굳이[구지] 달히다[다치다]
	ㄴ 첨가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 음절이 /ㅣ, ㅑ, ㅓ, ㅕ, ㅠ/로 시작하면 'ㄴ'이 첨가된다.	꽃잎[꼰닙] 식용유[시공뉴] 한여름[한녀름]
	유음화	앞 음절이 /ㄴ/으로 끝나고 뒤 음절이 /ㄹ/로 시작할 때, 혹은 앞 음절이 /ㄹ/로 끝나고 뒤 음절이 /ㄴ/을 시작할 때 /ㄴ/이 [ㄹ]로 발음된다.	신래[실래] 근로자[글로자] 찰나[찰라] 줄넘기[줄럼기]
	자음 축약	앞 음절이 /ㅎ/로 끝나고 뒤 음절이 /ㄱ, ㄷ, ㅌ, ㅈ/로 시작할 때, 혹은 앞 음절이 /ㄱ, ㄷ, ㅌ, ㅈ/로 끝나고 뒤 음절이 /ㅎ/로 시작할 때 두 자음이 하나의 소리로 합하여 발음된다.	좋다[조타] 않다[안타] 착하다[차카다] 꽃히다[꼬치다]
	두음 법칙	/ㄴ, ㄹ/이 음절 처음에 오면 /ㅇ, ㄴ/으로 발음된다.	女子[여자] 勞動[노동]

II. 새터민의 발음

1. 조사 대상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새터민을 대상으로 발음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다. 북한 지역 방언에 대한 연구 문헌을 검토한 후 남한 표준어 발음과 차이를 보일 만한 어휘와 형태, 문장 목록을 작성했다. 출신 지역이 동북, 서북, 육진 세 방언권에 고루 분포되도록 제보자를 구하고자 했으나 아래와 같이 절반 이상이 동북 방언권 출신이었다.⁴⁾

표 6. 방언권에 따른 제보자 분포

방언권	인원	비율
동북	23명	59%
서북	6명	15.4%
육진	10명	26.6%
전체	39명	

이는 새터민 전체의 구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아래 표를 보면 북한 이탈 주민의 80%에 가까운 수가 함경도 출신이고 그 중에서도 함경북도 출신이 68%를 차지하고 있다.

4) 각 지역 출신 제보자 수의 불균형은 발음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에서 유효한 차이를 구할 수 없는 원인이 되었다.

표 7. 북한 이탈 주민 입국 현황(2008년 12월말 현재)

구 분	함북	함남	평양	남포	평남	평북
누계(명)	10,230	1,520	371	89	553	479
비율(%)	68	10	2	1	4	3
구 분	자강	양강	황남	황북	강원	기타
누계(명)	100	767	291	224	313	120
비율(%)	1	5	2	1	2	1

제보자의 75% 이상이 입국한 지 1년 미만의 경우였고 2년 이상의 경우에는 한 명만이 5년 남짓 남한에 거주해왔고 나머지 4명은 2년 반 안팎이었다. 연령별 제보자 분포를 보면 20~30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각 연령대별로 제보자 수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었으나 40대까지 합하면 80%에 가까워 가장 활발한 사회·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대의 언어 실태를 조사하는 데 모자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 분포로는 여성이 28명으로 전체의 71.8%였고 남성은 11명으로 여성의 절반에 못 미쳤다.

2. 새터민의 발음 특징

발음 조사는 조사 항목이 각 군별로 나열된 종이를 보면서 낭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되었고 조사 항목에 대한 낭독이 끝난 후 녹음자의 질문에 답하는 자유발화 형식의 녹음이 이루어졌다. 낭독이라는 방식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문자의 영향으로 제보자 스스로 오류를 교정한 상태의 발음이 녹음되었음이 조사 항목 녹음과 자유발화 녹음의 비교에서 나타났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나타나는 발음 오류를 교정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자유발화에 나타나는 발음 오류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에 따르는 상황에서, 명시된 것을 읽는 낭독체에서조차 스

스로 교정하지 못하는 것이 발음 교정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의 대립에 대한 발음 교육 항목을 선택하게 되었다.

1) 모음 /으, 우/

표준 발음에서 /으/와 /우/는 [원순성]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며 각각 [ɯ]와 [u]로 발음된다. 새터민의 발음도 주로 이와 비슷했으나 /으/의 경우에 표준 발음보다는 약간 앞쪽에서 발음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새터민은 /으/에 [원순성]을 더해 [ɥ]에 가깝게 발음했는데 육진 방언권 화자의 발음에서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이는 남한 지역 출신 화자들에게 /우/로 들려 결국 ‘으 : 우’의 대립이 상실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⁵⁾

그러나 동북 방언권의 경우 /으/를 [우]로 발음하는 화자가 전체의 10%에 못 미치며 서북 방언권 화자의 경우 '끝'과 틀 문장 '나는 '으'라고 했다.'에서는 [우] 실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모음 /으/의 [우] 실현

	[우] 실현율(%)			
	전체	동북	서북	육진
은	30.4	8.7	16.7	50
끝	18.1	8.7	0	20
틀문장 ‘으’	12.5	4.3	0	30

5) 필자를 포함해 새터민 발음조사분석에 참여한 사람들의 청취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지만 일반 남한 방언 화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2) 모음 /어, 오/

표준 발음의 /어/는 그 조음 영역이 꽤 넓어서 단음일 경우는 [ʌ]로, 장음일 경우는 [a]로 실현된다. 그리고 /오/는 [o]로 실현된다. 낭독체에서 새터민의 /어/는 환경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a]에 가깝게 발음되어 표준 발음에 비해 조음 영역이 좁기는 하지만 남한 방언 화자들에게 /어/로 인식되기에는 충분하다.⁶⁾

그러나 새터민의 /오/는 표준 발음과 동일하게 [o]로 발음되기도 하지만 화자에 따라서는 저모음 [a]로 발음되기도 한다. 특히 많은 새터민의 발음에서 [오]의 원순성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a] 또는 [ʌ]로 실현됨으로써 남한 방언 화자들에게는 모음 /어/로 들리게 된다. 이는 새터민 발음의 징표가 되고 남한 방언 화자와의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표 9. 모음 /오/의 [어] 실현

	/어/ 실현율(%)			
	전체	동북	서북	육진
불	38.5	47.8	50	10
소리	33.3	34.8	50	20
틀문장 ‘오’	41.0	56.5	16.7	20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틀 문장 ‘나는 ‘오’라고 했다’ 안에서 발음한 /오/의 [어] 실현율이 가장 높는데 이것은 동북 방언 화자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북 방언(화자 수로 전체의 15.4%) 화자의

6) 자유 발화에서는 모음 /어/의 [오] 실현을 볼 수 있었다. 한 제보자(26세 여, 평안남도 청남구 출신)의 경우 자신이 발음을 잘못해서 상대가 /명/을 [뫼]으로 알아들어 당황스러웠던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다. 필자 역시 그 제보자의 자유 발화를 전사하면서 ‘억양’을 [오강]으로 발음하는 것으로 적었으니 일반인의 경우 자연스럽게 혼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경우 틀 문장 속에서 ‘오’를 [어]로 실현하는 비율이 단독 어휘 발음에서보다 낮다. 육진 방언권의 화자는 단독 어휘와 틀 문장 모두에서 /오/의 [어] 실현이 현저히 낮다.

3) 자음 /ㅅ, ㅆ/

표준 발음에서 /ㅅ, ㅆ/은 후행 모음의 종류에 따라 음성이 다르다. /이/(또는 /i/) 모음 앞에서는 경구개음 [c, c']로 실현되며 기타 모음 앞에서는 치경음 [s, s']로 실현된다. 새터민들의 발음도 /이/ 이외의 모음 앞에서는 모두 표준 발음과 동일하게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 모음 앞에서는 치경음으로 실현시키는 화자의 비율이 꽤 높았다. 평음 /ㅅ/보다는 경음 /ㅆ/의 치경음 실현이 많고 서북 방언의 경우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ㅆ/의 치경음 실현 비율을 볼 때 새터민 발음의 징표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표 10. /ㅅ, ㅆ/의 치경음 실현

	치경음 실현율(%)			
	전체	동북	서북	육진
시름	30.8	26.1	16.7	50
씨름	56.4	47.8	83.3	60

방언권별로 비교하면 육진 방언권의 화자가 /ㅅ/와 /ㅆ/ 모두 전체 평균 이상이고 50% 이상 치경음으로 발음하고 있다.

4) 구개음화

표준 발음은 형태소 경계에서 /ㄷ, ㅌ/ 뒤에 /이/가 연결될 때 /ㄷ, ㅌ/는 각각 경구개음 [ɕ, ɕ']로 실현된다. 그런데 새터민의 발음에서는 이러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ㄷ, ㅌ/가 그대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평

안 방언과 육진 방언은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방언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래 분석 결과표를 보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양상이 방언별로 다르고 특히 어휘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이/ 모음 앞 /ㄷ, ㅌ/의 비구개음화

	‘ㄷ, ㅌ’ 실현율(%)			
	전체	동북	서북	육진
말이	43.6	43.5	33.3	50
턱받이	61.5	73.9	16.7	60
가을걷이	69.2	69.6	50	80
굳이	33.3	34.8	33.3	30
걷히다	30.8	30.4	33.3	30
묻히다	7.7	4.3	16.7	10
끝이	35.9	39.1	33.3	30

발음 조사 결과를 보면 ‘턱받이, 가을걷이’ 등 명사형 접미사가 결합되는 어휘 발음에서는 육진 방언과 동북 방언 화자의 발음에서 /ㄷ, ㅌ/ 실현이 50%에 이른다. 그러나 부사형 접미사가 결합된 ‘굳이’와 피동 접미사가 결합된 ‘걷히다’의 /ㄷ, ㅌ/ 실현율은 30% 안팎에 머물고 있다. ‘묻히다’의 경우 10%에 못 미치는 실현율을 보였다. 주격조사 ‘-이’가 결합된 ‘끝이’의 경우 세 방언권 화자 모두 비슷한 실현율을 보였다. 서북 방언 화자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ㄷ, ㅌ/ 실현율은 다른 두 방언권 화자의 발화보다 떨어진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ㄷ, ㅌ/가 /이/ 앞에서 구개음화되지 않고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방언권, /이/의 문법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어진 어휘와 문장을 낭독하는 녹음 방식이 제보자로 하여금 문법 경계와 형태소의 문법 기능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 결과일 수도 있다.

5) ㄴ 첨가

표준 발음에 따르면 복합어(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새터민의 발음에서도 이러한 ㄴ첨가 현상이 존재하지만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방언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표 12. 복합어의 ㄴ첨가 실현율

	ㄴ첨가 실현율(%)
개성역	38.5
숨이불	2.6
홀이불	20.5

그러나 한자어의 경우에는 ㄴ 첨가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그 환경은 선행 요소가 공명음(ㅁ, ㄴ, ㅇ, ㄹ)으로 끝나고 후행 요소가 ‘ㄷ’로 시작하는 경우이다. 남한의 경상 방언에도 이와 거의 동일한 ㄴ첨가가 있다. 그리고 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평안 방언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함경 방언에서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한자어에서의 ㄴ첨가는 새터민의 모방언 또는 문화어 발음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현상 역시 방언권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표 13. 한자어의 ㄴ첨가 실현율

	ㄴ첨가 실현율(%)
권유	82.1
검열	92.3
금융	92.3
활용	74.4
필요	59
월요일	92.3

중부 방언은 이러한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방언이기에 ㄴ 첨가를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검열, 금융’에 한해 ㄴ 첨가를 허용하여 각각 [거:멸/검널, 그똥/금똥]이 가능하다.

6) 두음 법칙

표준 발음은 의존 명사나 외래어를 제외하고는 어두에서 ‘ㄹ’과 ‘이, 야, 여, 요, 유, 예’ 앞의 ‘ㄴ’ 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조선말 규범집》에서는 이 경우에도 ‘ㄹ, ㄴ’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발음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새터민들이 표준 발음과 다르게 발음할 가능성이 높다. [로동, 력사, 레절, 녀자, 녀녀]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아래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 역사, 예절, 여자, 염려’ 등의 표기를 보고 낭독할 때에는 ‘염려하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철자대로 읽고 있었다.

표 14. 두음 법칙 비실현율

	두음 법칙 비실현율(%)
예절	15.4
여자	7.7
노동	15.4
역사	5.1
염려하다	56.4

그러나 자유 발화에서 ‘노동, 여자, 염려하다’에 대해 다시 질문하자 세 어휘 모두, 혹은 하나나 둘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답을 했다. 이는 위 표에 나타난 결과가 철자에 집중한 낭독에 기인한 것이고 일상생활의 대화에서는 거침없이 ‘로동, 여자, 녀녀하다’와 같은 발음이 나타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새터민 발음의 큰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발음 교육 실제

1. 발음 지도의 단계

- 1단계 : 음소를 듣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 2단계 : 소리의 차이를 알고 다르게 발음해야 함을 알도록 한다.
- 3단계 : 소리를 발음해 보도록 한다.
- 4단계 : 발음을 듣고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말소리 교육

국립국어원 새터민 표준 발음 교실은 위의 각 단계에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에 따라 살펴보자

새터민 발음 교육 프로그램

새터민 발음 실태 조사를 통해 나타난 표준 발음과의 차이를 반영해 아래와 같이 여섯 개의 분절음 관련 교육 교실을 만들었다.



1. 소리의 차이를 알고 다르게 발음해야 함을 알도록 한다.





2. 음소를 듣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3. 소리를 발음해 보도록 한다.

http://test.elics.co.kr/ - 새터민이 배우는 표준 발음 교실 - Windows Internet Explorer

자음과 모음

끝? 끝?

새터민이 배우는 표준 발음 교실

처음으로 발음정리

차례보기

들 돌

녹음 단추 [] 를 눌러서 자신의 발음을 녹음하고, 정지 단추 [] 를 누른 다음 재생 단추 [] 를 눌러 동영상과 자신의 발음을 비교해서 들어 보세요.

녹음해 봅시다

※ 녹음하려면, 헤드셋이나 마이크를 준비하세요.

국립국어원

00:29 / 00:34

이전 4 8 다음

http://test.elics.co.kr/ - 새터민이 배우는 표준 발음 교실 - Windows Internet Explorer

자음과 모음

끝? 끝?

새터민이 배우는 표준 발음 교실

처음으로 발음정리

차례보기

녹음 단추를 누르고 문장을 직접 녹음해 보세요. 스피커 그림을 누르면 표준 발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은 운

저는 은수저를 사겠습니다. 저는 운이 좋습니다.

들 돌

들에 나가서 산책 좀 합시다. 돌이 함께 가면 어떨까?

술술

술술 놀면서 일하지 마세요. 술술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녹음 단추 [] 를 눌러 자신의 발음을 녹음하고, 정지 단추 [] 를 누른 다음 재생 단추 [] 를 눌러 표준 발음과 자신의 발음을 비교해서 들어 보세요.

녹음해 봅시다

※ 녹음하려면, 헤드셋이나 마이크를 준비하세요.

단추를 누르세요.

국립국어원

00:04 / 00:04

이전 5 8 다음

4. 발음을 듣고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참고 문헌

- 곽지영 외(2007),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 곽충구(2005), 육진방언의 음운변화-20세기초로부터 1세기 동안의 변화-,
진단학보 100
- 김영배(1994), 평안방언의 비구개음화 요인에 대한 일 고찰, 동악어문논집
29.
- 두길수, 황호전, 김범균, 안동연, 정성종, 이신원(2003), 북한 방언 검색
프로그램 개발, 2003년도 한국정보과학회 봄 학술발표논문
집 30-1.
-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랭기지플러
스.
- 소신애(2006), 수의적 교체를 통한 점진적 음운 변화-함북 육진 방언의
진행 중인 변화를 중심으로-, 국어학 48.
- 소신애(2006), 음운론적 변이의 유형과 요인-함북 육진 방언을 중심으로
-, 어문연구 34-1.
- 소신애(2007), 언어 변화 기체로서의 과도 교정-20세기 초 함북 방언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5-1.
- 안미애(2007), 조선족 평북 방언 화자의 대화체 문미 성조 유형에 대한
음향 음성학적 연구, 문학과 언어 29.
- 이현복(2000), 남북한 언어의 발음 차이에 관하여, 교육 한글 13.
- 한재영 외(2003), “한국어 발음 교육”, 한림출판사.

표준어 억양 교육

김 은 애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I. 들어가는 말

새터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구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어의 차이에도 여러 종류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회 적응을 방해하는 제1 원인은 발음의 차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발음의 차이는 음소의 음가 차이와 억양 차이로 나뉘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장에서는 억양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 공부하려고 한다.

억양이란 목소리의 높낮이가 엮어 내는 말의 가락을 뜻한다. 각각의 언어 집단은 제각기 특이한 억양 형태로써 감정이나 태도 등의 의미를 전달한다. 북한말¹⁾에서는 리듬의 단위가 짧고, 나누어 분명하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이 짧게 나타나는 리듬 단위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높내림조’의 억양을 수반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린다. 북한에서는 문화어의 억양이 찌칙하고 기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억양에 익숙하지 않은 남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색한 것이 된다. 이렇듯 억양의 차이로 인해 화자와 청자 사이에 심리적 괴리감 등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새터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새터민 대상의 표준어 억양 교육을 실시하고 연습과 피드백이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 이하 문화어로 부르기로 한다.

II. 표준어의 억양 연습

1. 억양 교정을 위한 기본 연습

1) 억양 고저의 편차 줄이기 연습

표준어는 대체로 고저의 편차가 심하지 않은 낮은 억양, 문화어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고저의 편차가 심한 억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저의 편차를 없애는 기본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 요령〉

- 학습자가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음을 기준으로 잡는다.
- 될 수 있으면 한 호흡으로 이어가도록 한다.
- 강약이나 리듬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속도가 너무 빨라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The diagram illustrates pitch correction exercises. At the top, a pitch scale from 1 to 4 is shown with a blue curve indicating a high pitch level. Below this, four examples of the sentence '나 이제 가요.' (I am leaving now) are shown, each with a different pitch level indicated by a blue curve. The examples are numbered 1 through 4.

① 나 나 나 나
이 제 가 요.

② 나 나 나 나 나
오 늘 은 바 빠.

③ 나 나 나 나 나 나
지 급 집 에 가 요.

④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어 제 비 가 왔 어 요.

함경도 방언을 구사하는 새터민들은 속도에 유의하도록 해야 한다. 함경도 말은 다른 지방의 말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준어 구사 시에는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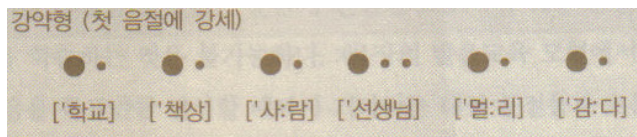
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함경도 지역 방언에서는 말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단어 생략, 음운 축약 등의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이를 표준어 구사 시에도 그대로 할 경우 한국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 억양의 고저 변별 연습(별첨 자료 참조)

나열된 음절 중들이 같은 음인지,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지, 가장 높은 것은 어느 것인지를 변별해 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음의 높낮이를 듣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의 높이였는지를 알아보는 심화 연습으로 들어간다. 표준어에서 ‘바람’은 첫 번째 음절이 높지만 문화어의 경우 두 번째 음절인 ‘람’이 높다. 음의 고저를 변별하는 데에 익숙해져야 한국인의 억양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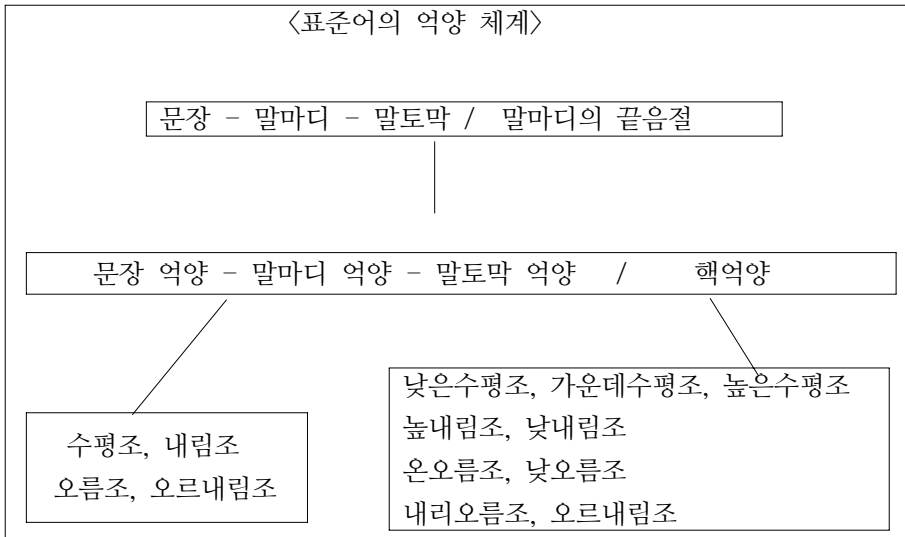
2. 단어와 문장의 억양

단어의 억양은 음절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표준어의 경우 서너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는 보통 둘째 음절을 가장 높게 발음한다. ‘개구리’를 발음하면 표준어 발음에서는 ‘구’를 가장 높게 발음하지만 새터민들은 ‘개구리’의 ‘리’를 가장 높게 발음하기 때문에 어색하게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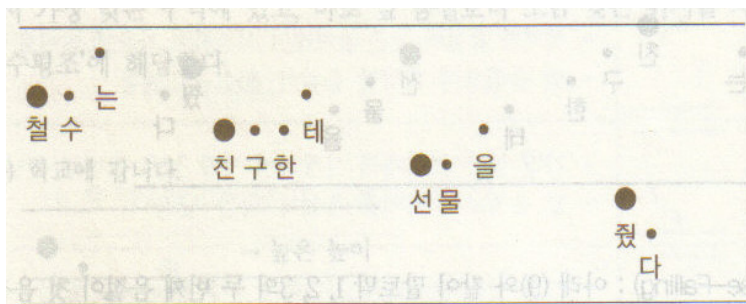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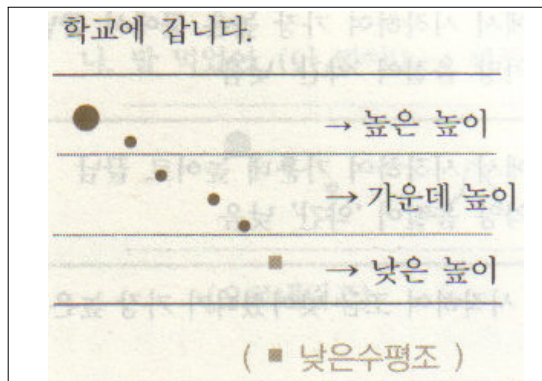
문장의 전체나 일부에 얹혀서 특정한 억양 의미를 전달하는 억양형을 억양 패턴이라 하는데 억양 패턴이 부과되는 가장 큰 단위는 문장이다. 문장 전체에 얹히는 억양 패턴을 문장 억양이라고 한다. 하나의 문장은 둘 이상의 말마디로 발음될 수 있는데, 각 말마디에는 문장 억양보다 작은 억양 패턴이 부과된다. 말마디에 얹히는 억양 패턴을 말마디 억양이라고 한다.

말마디는 하나 이상의 말토막으로 발화되는데 각 말토막에는 말토막 억양이 부과되고 말마디의 끝 음절에는 핵억양이 부과된다. 말마디의 마지막 말토막에 부과되는 말토막 억양은 마지막 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음절들에만 부과된다. 표준어에는 9개의 핵억양과 4개의 말토막 억양이 있다.



〈말마디와 말토막의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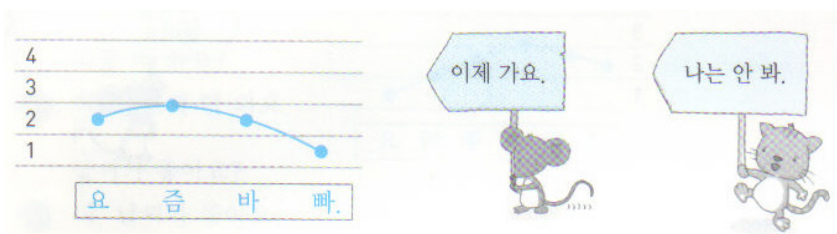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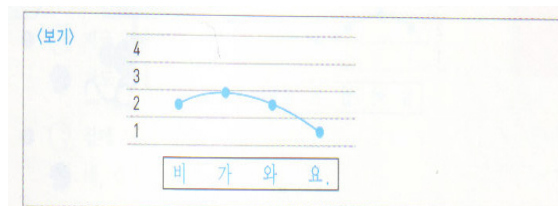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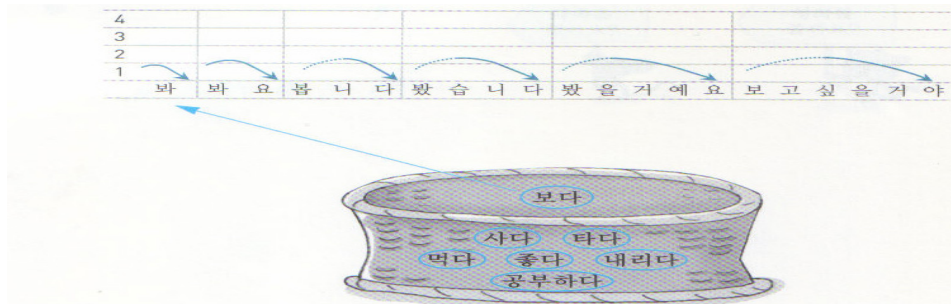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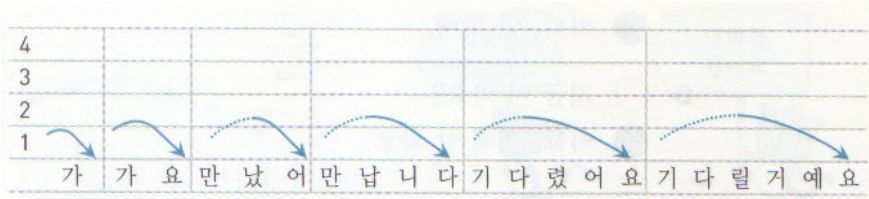
1) 평서문의 억양 연습

4음절로 이루어지는 문장을 들려 주고 가장 높게 들리는 곳이 어디인지 찾아보게 한다. 각 음절의 박자는 동일하게 하며 한 호흡으로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읽어 보도록 한다.

〈보기〉의 내용을 숙지하고 나서 다음 문장을 연습하게 하고, 새터민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연습해 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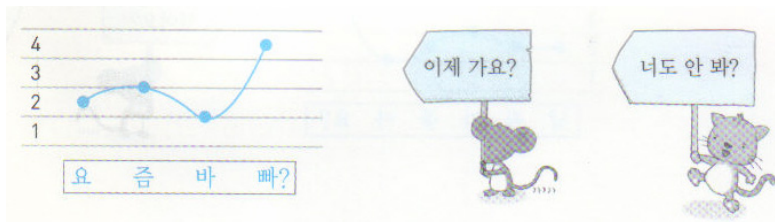
아울러 음절의 수도 늘려가며 연습시킨다. 아래는 문장 끝부분에 오는 단어의 음절수에 맞춰 평서문의 기본 억양을 하도록 만든 도표이다. 충분히 듣고 따라하게 한 후, 새터민들이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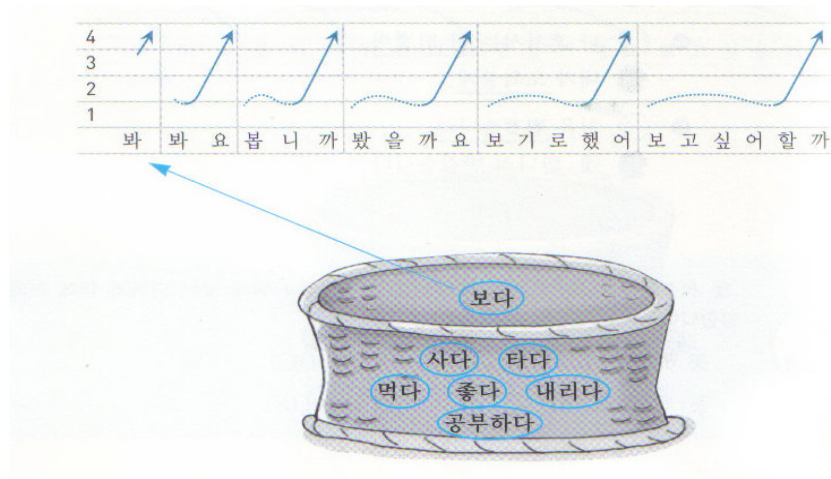


2) 의문문의 억양 연습

평서문과 같은 순서로 연습시킨다.

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 단,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려고 물어볼 때는 억양이 달라진다.

① ☺ 책 샀어요?
 ☹ 네, 샀어요.

샀 어 요?

② ☺ 책 샀지요?
 ☹ 그럼요.

샀 지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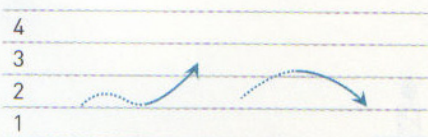
★ 선택 의문문의 경우에도 억양이 달라진다.

① 😊 같이 갈래요?
 😢 네,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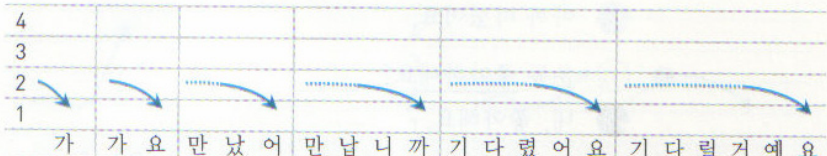
갈 래 요?

② 😊 갈래요, 안 갈래요?
 😢 안 갈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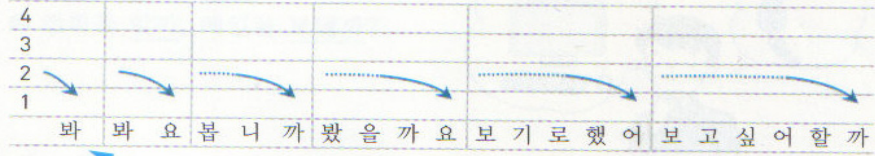


갈 래 요, 안 갈 래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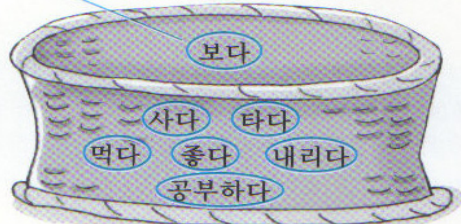
②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가 가 요 만 났 어 만 납 니 까 기 다 렸 어 요 기 다 릴 지 예 요
 어디 언제 누구



봐 봐 요 뵈 니 까 봤 을 까 요 보 기 로 했 어 보 고 싶 어 할 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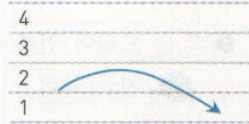


③ 의문사가 있으나 ‘예-아니요’의 의문문으로 쓰이는 경우

어떤 일이나 상태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물을 때는  억양으로 말합니다.

 어디 가요?

 극장에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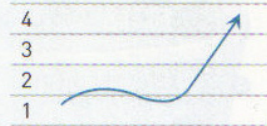


어 디 가 요?

어떤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을 때는  억양으로 말합니다.

 어디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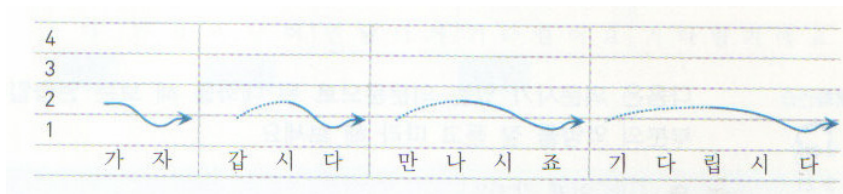
 아니요, 안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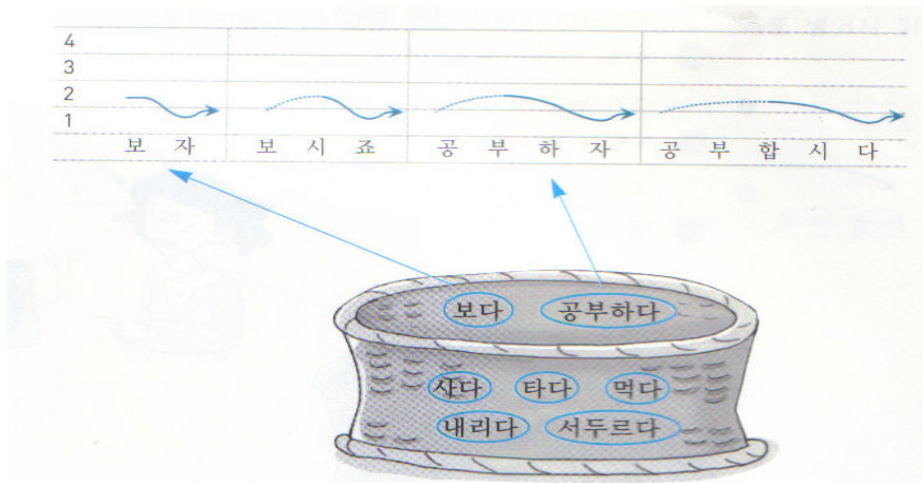


어 디 가 요?

3) 청유문의 억양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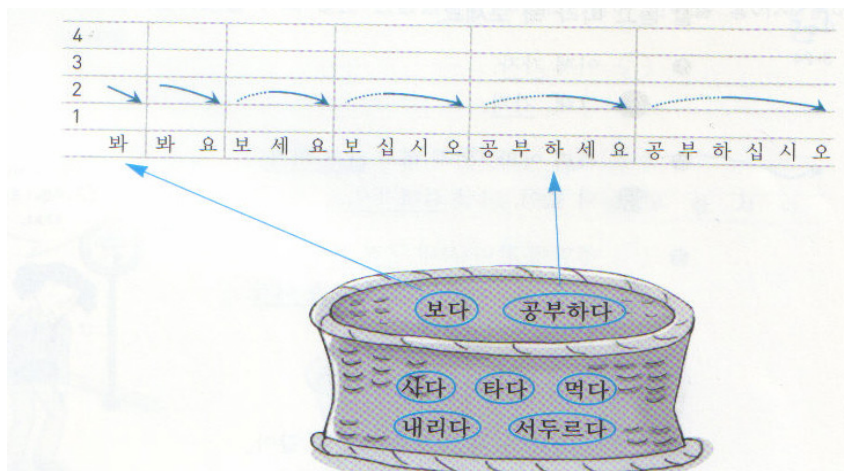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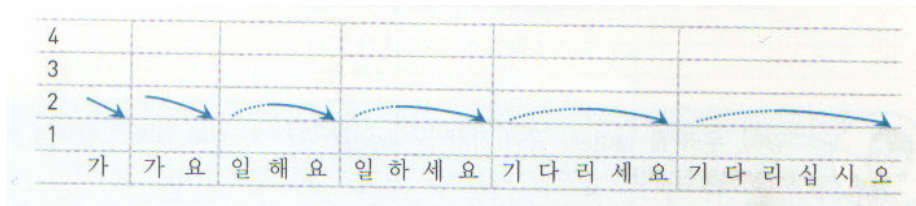
청유문의 경우 여성이나 젊은 연령층에서는 내리오름이 좀 더 강조된 발음을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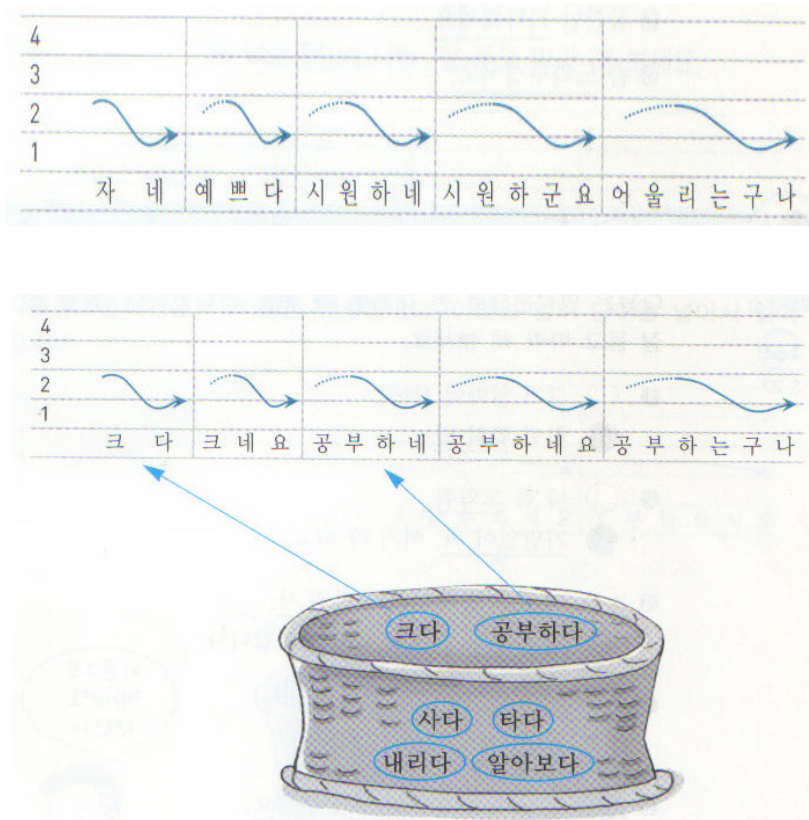
4) 명령문의 억양 연습

명령문은 어떤 톤으로, 어떤 속도로 말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 지므로 상황에 맞게 억양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감탄문의 억양 연습

감탄문 역시 남성보다는 여성, 중장년층보다는 젊은 연령층에서는 오르내림이 좀 더 강조된 발음이 나타난다. 중장년층 남성의 경우 오르내림이 거의 없이 발음하기도 한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2009), 〈새터민이 배우는 표준 발음 교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1, 2),
랭기지플러스
이호영(1999), 《국어음성학》, 태학사
고도홍 편(1998), 북한의 음성학 연수, 한국문화사

편집: 김문오(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 학예연구관)

국립국어원 2010-03-19

새터민 언어 적응 지원을 위한
새터민 교사 연수 자료집

2010년 7월 20일 인쇄

2010년 7월 23일 발행

발행인: 권 재 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길 148(방화 3동 827)

<http://www.korean.go.kr>

전화: (02) 2669-9733
